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10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9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10 호 (167)

1959년 10월 15일

내 용

권 두 언

지방 공업 발전에서 새 승리를 달성하자

우리 인민이 력사상 전례 없는 륭성기에 처하고 있을 때, 당은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를 소집하였다.

지난 12일부터 4일 간에 걸쳐 진행된 대회는 지방 공업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 도상에서 이룩한 위대하고도 놀랄만한 성과를 총화하였으며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를 과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지방 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전투적 임무가 토의되였다.

우리 당의 정책을 받들고 지방 공업 부문에서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승리자들은 그들을 보람찬 새 생활에로 인도한 당과 수령에게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렸으며 당이 제시한 과업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실행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는 비단 지방 공업의 발전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될 것이다. 《이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력사에서 실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한 페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김 일성,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대회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돌렸으며 그가 거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다.

대회에서의 총화가 명백히 보여 준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매 시기마다 지방 공업 발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관철시킨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며 근로자들의 창조적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은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만 자유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 경제——일제의 식민지 략탈 체계에 얽매여 발달하지 못한 기형적인 중공업과 극도로 몰락한 경공업은 해방 후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특히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당 정책 실현에서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제 조건을 준비하며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기 위한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는 것은 해방 후 일관하여 우리 당의 주목의 초점으로 되였다.

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하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기간을 이루는 현대적인 대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중 소 규모 지방 공업을 병행시켜 발전시키는 문제에 거대한 현실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당은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나 현대적 대규모 공업과 중 소 규모 공업 간의 관계에서 그 어떤 대립적 모순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조건

하에서 소비재 생산을 위주로 하는 지방 공업은 중공업에 기초하여 발전하면서 동시에 중공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중 소 규모 공업과 대규모 공업의 합리적 배합이 중앙 집권제와 지방적 창발성의 최대한 결합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 앙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방 공업이 가지는 일련의 특성과 경제적 유리성을 타산하였다.

바로 이렇게 우리 당은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격히 증대시킬 데 대한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고리로써 중 소 규모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 문제를 틀어 잡고 대중을 동원하여 그를 실현시켰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며 우리 인민의 지향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된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은 현실에서 빛나게 확증되였다.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의 창설은 해방 후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따라 건설된 도영 공업과 함께 생산 협동 조합 공업의 발생 및 발전과 긴밀히 관련되여 있다.

당은 해방 후 계급적 력량 관계에서의 혁명 력량의 압도적 우세와 과도기의 초기부터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인민 경제에서 절대적인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개인 수공업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는 사정 등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협동화 로선을 제시하고 각이한 대책을 실시하면서도 이 두 개 경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밀접히 련결시켜 통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레닌적 협동화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게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형태들을 규정하였으며 협동화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대중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창조적 활동에 확고히 립각하였다.

실지 생활은 우리 당이 제때에 협동화를 제기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형태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가 가장 정확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당이 가리킨 협동화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적 경리 체계에 망라된 수공업자 및 중 소 상공업자들은 인민 정권의 지도와 방조 밑에 경리를 부단히 그리고 급속히 발전시켜 왔다. 1949년에 비하여 1959년 6월 말 현재 생산 협동 조합 공업 총 생산액은 무려 22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 획기적 전환점으로 된 것은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였다.

현실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의 혁명적 열의를 결합시킨 6월 전원 회의의 위대한 발기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거대한 재부의 산'더미가 솟아나게 하였다.

전원 회의 이후 불과 1년이란 단기간 내에 전국 각지에서 1,473개에 달하는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여 생산 협동 조합 공장까지 합한 지방 공업 공장수는 실로 2,038개에 달하게 되였다. 그것은 금년도 공업 총 생산액의 27.5%, 특히 소비재 생산에서는 45.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품을 내게 된다.

어제'날 미약한 력량이였던 지방 공업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 인민 경제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강대한 력량으로 전변되였으며 과거에 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로 불리우던 우리 나라는 오늘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공장들로 뒤덮이게 되였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가 부르는 혁명의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이 일심 단결하여 이룩한 새로운 위대한 승리이며 자랑찬 업적이다. 우리는 이 빛나는 승리를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높이 자랑한다.

이 성과는 물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방 공업 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이 오직 혁명을 위한 한마음으로 모든 난관을 타개 극복하는 눈물겨운 투쟁을 통하여 맺게 한 고귀한 열매이다.

그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호소에 고무되면서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내는 영웅적 기개를 발휘함으로써 건물과 설비, 원료와 자재, 로력과 기술 등 모든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평양시 중구역 제지 공장 로동자들은 파벽돌과 고목재를 모아 2,000평방메터의 공장을 세우고 한 명의 기술자도 없이 공작 기계를 만들어 1,800 여개나 되는 부속품을 가공하여 자동화된 초지기를 설계 제작함으로써 오늘은 하루에 10톤 이상의 각종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18명의 무기능 녀성 로동자들이 옛날 베틀 3대와 물레 8대를 가지고 두 간짜리 초가에서 하루에 무명 40메터밖에 짜지 못하던 황주 직물 공장에서는 녀성들의 힘으로 해발 1,000 여 메터의 험산 준령에서 목재를 채벌 운반하여 공장을 짓고 설비를 해결하여 1년이 지난 오늘에는 벌써 4급공 이상의 기능공 150명을 포함한 400 여명의 로동자들이 력직기 100대로 하루에 각종 직물 3,600메터를 생산하는 큰 직물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배천 영예군인 식료 공장 로동자들은 공한지를 기경하고 림야와 습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한편 목장을 만들고 꿀벌도 놓아 공고한 원료 기지를 창설함으로써 82종에 달하는 각종 식료품을 생산하게 되였다.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쳐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천리마의 기수답게 모든 난관, 모든 장애를 뚫고 투쟁한 영웅적인 사적, 형언할 수 없는 감동적 사실들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의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 수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지방 공업 공장들은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에도 적극 참가하여 이미 1,900대의 공작 기계를 자체로 생산하고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1958년 6월 전원 회의 직후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당의 방침——앞으로 지방 산업 공장들의 토대가 튼튼하여짐에 따라 그를 점차 기계화할 것이라고 한——실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바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 문제 해결에서의 그의 현명성과 능숙성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 《가난한》 우리 나라의 면모를 신속히 개변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그들의 강렬한 혁명적 의지와 결합되여 이처럼 위대한 성과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영웅적이고 용감한 투쟁은 오직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령도하에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 영웅한 우리 인민들의 단결된 힘으로써만 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이 투쟁을 통하여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인도하는 참모부로서, 우리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당과 인민과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하에서 나라의 면모를 변혁시키기 위한 창조적 활동에서 발휘하는 그들의 힘의 위대성을 더욱 잘 리해하게 되였으며 열의와 신심이 백배 천배로 제고되였다.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의 발전은 나라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것은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경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관건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규모 공업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면서 인민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대규모 공업이 생산고와 기술이 높고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이 시간과 조건과 장소에 제약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일 현 시기 우리의 조건하에서, 거액의 기본 투자의 일시적 지출을 요구하며 설비,

기술, 로력 문제 등의 해결에서 일련의 제약을 면할 수 없으며 투자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대규모 공업에만 의존하였더라면 우리는 단시일 내에 경제를 그처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요구와 소비품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그처럼 훌륭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소비재 생산에서 지방 공업은 공장수가 많고 소비 대중과 가까이 련결되어 있음으로 하여 주민들의 각이한 기호에 맞게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며 또한 부단히 변화하는 기호에 적응하게 생산을 기동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규격, 품종 등에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지방적 예비를 동원하여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 공업은 국가로 하여금 보다 큰 력량을 중공업 발전을 위하여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더 많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 공업의 발전은 원료, 설비 및 자금의 합리적 리용, 상품 운동의 합리적 조직, 생산 기술의 제고 등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놀고 있다.

지방 공업의 발전은 생산력의 합리적 배치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을 원료 원천지와 제품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분산되고 적은 지방 원료와 설비, 자금의 최대한 리용을 보장하고 원가의 현저한 저하를 달성케 하고 있으며 생산 및 류통 기간을 단축시키고 국가의 운수 사정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또한 수공업적 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생산에 효과 있게 리용하여 보다 광범한 근로자들의 기술적 훈련을 보장하면서 중앙 공업으로 하여금 전문화에 더욱 력량을 집중케 함으로써 전반적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과 전반적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지방 공업의 발전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적 소유가 청산된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은 국가적 소유와 협동 조합적 소유의 두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이 두 형태의 소유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니 그의 발전은 오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강화 발전을 의미할 따름이다.

또한 지방 공업의 발전은 수 많은 부양 가족 로력들을 사회적 로동 행정에 끌어 들이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대렬의 장성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이 곧 전체 사회 성원들의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로 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추동하는 지방 공업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급속히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교양의 강화와 함께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강화함으로써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업의 발전은 사회적 분업에 있어서 동지적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케 하고 있다. 지방 공업 공장의 광범한 분포는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 특히 지방적 류통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보장하고 도시,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소멸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일찌기 1921년에 위대한 레닌은 농촌의 소형 발전소가 노는 거대한 작용을 평가하면서 그것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결국 농민들에게 로씨야가 락후한 기술에 매달려 있지 않고 새 시대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지적하시였다. 물론 레닌의 이 평가는 농촌의 소형 발전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 광범히 일떠 선 지방 공업 공장들에 대하여서도 바로 이렇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은 자기의 생산물을 원료로

소비하며 자기에게 소비품과 생산 수단들을 공급하여 주는 공장들을 보다 가까운 곳에 가지게 되였다. 이것이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의 촉진,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의 급속한 제고를 보장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농산물의 상품화 비률을 제고하고 공업 생산 발전을 추동함에 있어서 큰 힘으로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친선적 뉴대로써 맺어진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의 강화,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분업 간의 내용을 이루는 동지적 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처럼 거대한 혁명적 의의를 가지는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이미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달성한 성과가 크다할지라도 이에 결코 자만할 수는 없다. 우리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지방 공업의 기초를 닦아 놓았을 뿐이다. 우리는 이 성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지방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금번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지방 공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기본적인 과업은 첫째로 공고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로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부단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며, 세째로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네째로 공장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다섯째로 문화 혁명 과업을 계속 수행하며, 여섯째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 공업의 사명과 본질, 그의 활동의 기본 원칙은 지방의 원료 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생산을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품종의 확대와 질 제고, 생산의 높은 성과가 모두 원료 기지의 조성 문제와 크게 관련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 개건을 전반적 기술 혁명과 밀접히 련관시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부문에서의 기술적 개건은 전반적 기술 혁명 수행의 중요한 일환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은 중공업의 지원하에 수행되면서 동시에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특히 기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전반적 기술 혁명 수행에 기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락후한 설비를 현대적인 것으로 재정비하고 기계화를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 선진적 생산 방법을 계속 도입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부문의 생산 장성 템포에 비하여 기술적 준비 상태가 뒤떨어지고 있는 현 상태를 시급히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 없이는 품종의 확대와 질 제고 문제도, 기업 관리 운영의 개선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문에서의 기술적 개건은 동시에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요구한다. 기술적 개건은 이 부문 일'군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문화 혁명은 오직 기술적 개건의 기초 우에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지방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이 부문 일'군들 속에서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목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당 단체들은 이 부문 근로자들의 구성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소부르죠아적 기분과 개인 리기주의적 심리, 소소유자적 경향의 모든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인민을 위하여 서로 도우면서 근면하게 일하는 집단주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금후 지방 공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의 물질—생산적 토대를 강화하고 이 부문을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더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것은 물론 단순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함에 필요한 조건들이 성숙되여 있다.

우리에게는 도처에 풍부한 원료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지방 공업은 자체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함에 있어서 강력한 중공업 특히 기계 제작 공업에 의거할 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최근 공업 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의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조치에 의하여 일련의 중형 중공업 기업소들을 가지게 된 지방 공업은 그의 자립적 토대를 일층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 부문에 수 많은 우수한 관리 간부와 기술 일'군들을 파견하였다.

또한 이 부문 근로자들은 당 정책을 관철시킬 데 대한 높은 열의로 충만되여 있다.

문제는 지방 당, 정권 기관들과 지방 공업 부문 지도 일'군들의 사업 조직과 지도 여하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방침을 자체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정확히 결합시켜 깊이 료해하고 대중 속에 구체적으로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를 계속 전 인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공업 부문 근로자들은 지방 공업에 대한 기술적 방조를 더욱 강화하며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더 많은 원료를 대 주며 류통 부문 일'군들은 모든 방법으로 지방 공업 부문에서 생산한 상품의 실현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의 전체 인민들은 지방 공업 공장들을 자기것 처럼 사랑하며 그의 발전을 위하여 집단적 지혜와 창발성을 바쳐야 한다.

지방 공업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그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최근 교시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현존 시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새 건설은 전망성 있게 진행하면서 그의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력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기술 장비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종합 기계 공장들을 튼튼히 꾸리면서 숨은 기술을 계속 찾아내는 동시에 새 기술을 연구하며 선진 기술 성과를 생산에 확고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소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관리 수준이 낮은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증대되는 원료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로부터 기업소 관리 운영 사업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 해결에서 자체의 력량을 옳게 타산하고 선후차를 가리여 산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각급 당 단체들은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 계획 기관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며 그들의 사업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당 단체의 지도 밑에 확대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방 공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예견성 있게 강구하며 인민과의 련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생산으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그의 계획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 공업 부문 근로자들 속에서는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강력한 군중 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반드시 이 운동을 옳게 지도하여야 하며 그를 계속 새로운 고조에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는 길을 단축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현,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 투쟁이다.

지방 공업 부문 내 전체 근로자들은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하신 과업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하여 지방 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다시 한 번 시위하자.

지방 공업 발전의 새로운 단계

안 광 즙
리 원 경

1

금번 진행된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는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의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조치를 관철시키며 지방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조치는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의 일대 변혁을 이룩하는 혁명적 조치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력량의 재편성으로 된다.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부단히 장성 발전해 온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금번의 조치에 의하여 가일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새로운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원래 소비재 생산 분야에서의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농산물을 비롯한 지방 원료의 동원 리용, 수요의 변동에 적응하는 생산의 기동적 조직, 로력 문제 해결의 용이성, 건설비의 절약과 건설 기간의 단축 등 대규모 중앙 공업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일련의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적 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의 분야에서 자체 발전의 광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유리성과 가능성은 일제의 독점적 식민지였던 해방 전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었다. 오직 해방 후 인민 정권하에서만 우리의 지방 공업은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얻게 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중 소 규모의 기업을 몰락시키던 약육 강식의 경쟁, 대자본에 의한 기술의 독점, 소규모 경영에 대한 고리대적 착취와 과중한 조세 부담 및 기타 각종 형태의 경제외적 압박——이 모든 것이 제거된 조건하에서 인민 정권은 지방 공업에게 필요한 재정적 및 기술적 방조를 주면서 그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우리 인민의 부단히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원만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과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전체 사회 성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법칙인바 대규모 중앙 공업과 더불어 지방 공업을 광범하게 발전시킴으로써만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을 량적, 질적으로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다. 전국 각지의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적극적 참가하에서의 지방 공업의 대대적인 확장은 과거에 경공업이 극히 락후하였으며 더우기 전쟁 피해가 심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단시일 내에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방 공업의 발전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매개 지방에서의 주민들의 수요는 기후 풍토 조건, 전통적인 관습과 기호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또 매개 지방에서의 수요 구조의 변동도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수요를 옳게 타산하며 그에 대한 생산과 공급을 기동성 있게 조직함에 있어서 각지에 광범하게 분포된 지방 공업은 대규모 중앙 공업보다 유리하다.

소비재 생산 분야에서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경제에서 필요한 균형을 보장하며 그의 계획적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균형의 하나는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 간의 균형이다. 이 균형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과 그에 기초한 소비재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통하여 달성된다.

전후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제시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이 어려운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에 대한 필요한 투자를 삭감함이 없이 경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공업 분야에서 적은 투자로 생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방 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으로써만 이 과업은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 간의 균형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이다. 축적과 소비 간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유지하며 그 기초 우에서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방 공업의 발전이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 보장에서 가지는 의의는 축적 폰드를 희생으로 하지 않고 소비 폰드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소여 시기에 있어서의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 간의 상대적 모순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데 있다.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생산의 합리적 배치, 지방 자원의 가장 완전한 리용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의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 불합리한 수송과 원거리 수송의 축소, 모든 지방들에서의 경제 및 문화의 균형적 발전 등을 요구하는바 지방 공업의 발전은 전적으로 이 요구에 순응한다.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보장할 데 대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된다.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에 있어서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긴절한 혁명적 과업이다.

생산 발전의 높은 템포를 달성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그것이다.

우리의 지방 공업은 지방에 잠재하는 원료, 자재, 설비, 로력 및 기술을 동원 리용함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 창발성을 고무하며 나아가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

2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경제 건설의 매 단계에서 그의 구체적 내용을 달리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혁신시킬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과 그의 실행은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에서 획기적 단계를 열어 놓은 중요한 사변이였다.

인민 정권 수립 후 6월 전원 회의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지방 공업 발전은 우리 나라 산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퇴치 및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행정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었다.

우리 인민이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극도로 락후한 경공업은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균형적 발전 특히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며 우리 인민을 착취할 목적으로 원료 및 반제품 생산에 편중된 일부 기형적 중공업

만을 건설하였을 뿐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의 발전은 극력 억제하고 몰락시켰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규모 경공업을 건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수공업조차 여지 없이 파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 시장에까지 명성을 떨쳐 온 직물, 도자기, 제지 및 기타 일용품 생산 분야에서의 수공업은 일본 상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극도로 쇠퇴되였다. 경공업의 락후성은 북반부 지역에서 더욱 우심하였는바 직물 생산의 85% 이상, 식료품 공업 생산의 70%가 남반부 지역에 편재되여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였다.

당은 우리 나라 소비품 생산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그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47년도 북조선 인민 경제 발전에 관한 보고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북조선에 광범한 필수품——의복, 양화, 식료품, 금속 제품, 전기 설비 및 기타——의 생산이 얼마 없게 하였다. 1947년도에 우리 앞에 제기되는 중대한 과업은 즉 국내 경제의 발전에서 이러한 결점을 퇴치하고 광범한 필수품 생산 발전에 대한 각 지방 인민 위원회와 개인들의 창발력을 장려할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김 일성 선집, 제 1권, 1955년, 327~328페지).

전시에 지방 공업의 의의와 역할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대규모 중앙 공업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하에서 당은 지방 공업을 유지 확장하는 데 힘을 경주하였다. 결과에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지방 공업의 발전은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제한 리용 개조와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는바 이는 개인 기업의 창발성의 장려, 수공업의 점차적인 협동화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을 통한 생산 협동 조합 운동의 발전에서 표현되였다.

이처럼 지방 공업은 부단히 발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 공업 발전 수준이 낮았고 공업 건설 력량이 부족하였던 지난 시기에 있어서는 기본 력량을 대규모 중앙 공업의 건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체 공업에서의 지방 공업의 지위와 역할은 아직 미약한 처지에 있었다. 1949년과 1956년에 공업 총 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 12.3%였다.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한 지방 공업의 발전은 종전에 비하여 중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이 퇴치되고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거대한 예비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6월 전원 회의 결정의 실행에 의하여 지방 공업 기업소들은 매개 시, 군에까지 광범하게 건설되여 지방에 새로운 공업 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지방 공업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광범한 근로자들의 자신심과 창발성이 제고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당은 6월 전원 회의 결정 수행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방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이 방침의 실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의 중요 특징은 무엇인가?

3

현 시기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미 확립된 지방 공업 기지를 공고히 하며 그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튼튼한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하게 되였다는 데 있다.

오늘 우리의 지방 공업은 우리 나라 공업 구조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면서 자립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인민 경제 전체 부문들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고 강력한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 공업의 지원이 있으며 또 새로운 지방 공업 기지들이 창설된 조건하에서 오늘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은 지방 공업 자체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개별적 지방들에서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필연성과 그의 합목적성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 특히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에 의하여 조건 지어진다.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는 도시와 농촌, 인민 경제 각 분야에 잠재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전면적으로 동원하여 그를 합리적, 계획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인민 경제를 계속 높은 템포로,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가일층 공고히 하고 속한 시일 내에 인민 생활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규모적 현대 공업 발전에 의존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며 이와 함께 급속한 발전의 길에 들어 선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 조건하에서 지방 공업을 가일층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게 그를 종합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립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종전에 지방 공업의 독자적 발전을 저애하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매개 지방들에서 자체의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들을 독자적으로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철재, 연료,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지방적 수요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 공업의 자립적 구성을 조성하며 그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매개 지방들에 내재하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되며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활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의 현실적 조건들은 이미 창설된 지방 공업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튼튼한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의 발전에 있어서 지난 시기에는 주로 지방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총 동원하여 더 많은 공장들을 신설 확장하는 것이 문제로 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도, 시, 군영 공장들과 생산 협동 조합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함으로써 현대적 공장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지방 공업 기업소들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는 것은 이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 품종의 확대와 품질의 제고 등 기업소 경영 활동의 중요한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더욱더 개선함으로써 지방 공업이 가지는 일련의 특유한 우월성들을 더욱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한 거대한 지방적 예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 고리로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지방 공업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방 공업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로 되는 중규모의 종합 기계 공장, 제철 공장, 연료 기지 등을 창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지방 공업 자체의 생산적 소비를 충족시키면서 독자적으로 기술적 개건을 실현할 수 있다.

현 시기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은 바로 이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바 그의 특징은 주로 중소 규모 공장들에 기초하여 자기의 본래의 사명인 인민 소비품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그의 발전을 독자적으로 계획하며 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생산 수단들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공업 토대를 확고히 조성한다는 데 있다.

현 시기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은 도, 시, 군을 단위로 하여 지방 공업을 하나의 종합체로 형성하고 자체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 공업 기업소들을 현대적인 공업 기업소들로 전환시키는 데 그의 중심 내용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은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공업 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특히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일어난 공업 구조 및 생산력 배치에서의 변동은 우리 나라의 지역이 그리 넓지 않으나 각지에 다양한 원료 원천이 광범히 분포되여 있는 사정과 관련되여 경제 지구의 형성이 아니라 지방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을 요구하게 되였다.

현 시기 지방 공업 발전에서의 특성은 또한 그의 중앙 공업과의 호상 관계에서도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호상 관계는 인민 경제의 발전과 새로운 혁명 과업 등에 의하여 변화 발전되여 왔다. 이 호상 관계를 통하여 공업 관리에 대한 레닌적 원칙인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보다더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간의 호상 관계는 일련의 요인들——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퇴치와 새로운 공업 부문의 창설, 공업 발전 수준을 급속히 제고할 필요성 등으로 말미암아 당이 우선 중앙 공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력량을 집중한 결과 중앙 공업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공업은 보조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표현되였다.

그것은 인민 경제 발전의 실제 행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정당하였다. 우리 나라에 조성되였던 사회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템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간의 이러한 호상 관계는 최근 시기 지방 공업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그의 일정한 물질적 토대의 축성 특히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광범한 전개, 나아가서는 공업 전반에 걸치는 급속한 앙양, 공업 생산력 배치에서의 변화 등 변천된 정세에 조응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방 공업 체계 확립과 관련된 최근 시기 지방 공업 발전상의 특성은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간의 호상 관계의 중요한 변화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이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재 생산에서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량자 병진이 더욱 뚜렷하게 된 것이다.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호상 관계에서의 변화는 지방 공업까지도 포함한 공업 발전에서의 변화와 기타 객관적 정세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자체의 특성들과도 결부되여 있다.

생산 수단 생산 분야에서의 중앙 공업의 결정적 역할은 생산 수단 생산의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중공업 발전의 일반적 요구인 대규모 경영은 방대한 각종 물자 자원, 로력, 재정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방대한 생산적 수요를 지방적 범위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지리적 조건과 생산 배치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 기업소들의 생산물은 집중성을 띤

생산적 소비에 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모든 중공업 기업소들이 중앙 공업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공업 기업소들에서도 대규모 기업과 중규모 기업,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결합은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생산 수단 생산에서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간의 호상 관계와는 달리 소비재 생산 분야에서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호상 관계는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전 인민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대규모 공장을 중앙 공업에, 중 소 공장들을 지방 공업에 망라시킴으로써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이 병진함을 의미한다. 이 병진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재 생산에서의 현저한 부분을 지방 공업이 담당한다는 데 있다. 1959년에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지방 공업은 실로 45.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소비재 생산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병진은 소비재 생산 부문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다.

소비재 생산에서 지방 공업은 지방적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비도 지방적 성격을 띠며 동시에 경공업 기업소들은 기술상 및 생산 조직상 특성으로 인하여 중 소 규모로도 능히 기계화, 현대화, 나아가서는 자동화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재 생산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병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당의 옳바른 시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상 수요가 급속히 제고되는 조건하에서 특히 이러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더 빨리 그리고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방대한 기본 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공장의 건설도 필요하지만 적은 기본 투자로 속히 건설할 수 있는 중 소 규모의 공장들의 발전이 현 시기 더욱 필요하다.

소비재 생산에서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병진은 특히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총 로선——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필요하다. 소비품 생산에서의 이러한 병진은 경공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보다 많은 력량을 대규모 중공업 기업소의 지도에 경주하며 국가 투자를 중공업의 발전에 선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계속 견지케 한다. 동시에 그것은 농산 원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경리 발전에도 자극을 준다.

소비재 생산 분야에서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병진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공업 발전 행정을 총괄하여 당이 제기한 방침으로서 어떤 일시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비재 생산에서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병진을 보장하는 것은 현 시기 인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로 된다.

※ ※

금번 진행된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조합 열성자 대회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우리 앞에는 대회가 제시한 과업——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며 공고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고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고 문화 혁명을 추진시킬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인내성 있게 진행하고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 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

류 소 기

위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중국 혁명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계속이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인류 력사의 새 기원을 열어 놓았으며 세계의 면모를 개변시키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쏘련의 성과, 쏘련을 주요한 력량으로 하는 반파쑈적 세계 대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구라파 및 아세아에서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창건,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는 상승하며 자본주의는 몰락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력사의 법칙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세계의 면모를 더욱 개변시켰다. 중국 혁명은 동방의 제국주의 전선에 매우 큰 파렬구를 만들어 놓았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새 중국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되였다. 쏘련,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며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대륙에 뻗어 있는, 단결되고 친선적인 사회주의 대가정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혁명은,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았거나 또 받고 있는 모든 후진 국가 인민들에게 거대한 견인력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중국 인민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들도 마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 대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

중국 혁명의 승리는 중국의 사회적 생산력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 왔으며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일일천리로 급속히 추진시켰으며 그리하여 중국의 빈궁하고 락후한 면모를 급속히 개변시켰다.

전국이 해방된 후 첫 3년 간 즉 1950년부터 1952년까지에 중국은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공업과 농업 생산을 해방 전 중국에서 도달하였던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릉가하게 하였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 인민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여 공업 총 생산액에서는 141%, 농업 총 생산액에서는 25%를 각각 더 증가시켰으며 현대 공업이 인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57년에는 1952년의 26.7%로부터 40%로 제고시켰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완수는 중국에서의 공업화의 초보적 토대를 축성하였다. 1958년부터 우리는 제 2차 5개년 계획 수행의 길에 들어 섰다. 이 해에 인민 경제에서 대약진이 일어났다. 공업 총 생산액은 1957년에 비하여 66%, 농업 총 생산액은 25%가 각각 증가하였다. 작년의 대약진에 기초하여 금년에도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 1958년에 비하여 금년에는 공업 및 농업 총 생산액을 20% 증가시키되 그 중 공업 총 생산액을 25.6%, 농업 총 생산액을 10%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강철, 석탄, 야금 설비품, 발전 설비품, 금속 절삭 기대, 면사, 목재, 알곡 및 면화 등 주요 공업 제품 및 농산물들의 계획 생산량에 있어서는 모두 원래 제 2차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1962년도 생산 목표를 금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거나 혹은 거의 완수할 것이다. 중국의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이러한 비약적인 속도는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도 대등할 수 없는 것이며 과거 중국의 조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칼 맑스는《혁명은 력사의 기관차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였다. 중국에서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를 전복한 민주주의 혁명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를 청산한 사회주의 혁명이 없었더라면 현대적 공업, 현대적 농업 및 현대적 과학 문화의 급속한 발전이 없었을 것이며 전국 인민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차게 분투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정세는 조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혁명은 중국 인민에게 무한한 희망과 휘황 찬란한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인민이 쟁취한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이며, 중국 공산당의 령도에 의하여 달성된 승리이며 또한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총 로선의 승리이다.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모 택동 동지는,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의 전 혁명 운동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를 포함한 전 혁명 운동이며,… 오직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구별을 똑똑히 인식하며, 동시에 또 량자의 련계를 똑똑히 인식함으로써만 중국 혁명을 정확하게 령도할 수 있는 것이다》(모 택동 선집, 조선문 판, 제 2권 하, 113~114페지)라고 루차 설명하였다. 한편 중국 혁명에서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로씨야의 멘쉐위크들처럼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이 두 혁명 간의 호상 련계를 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그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에로 전환될 수 있는 전망을 보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로씨야의 트로쯔끼주의자들처럼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간의 한계를 뒤섞어 놓고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부르조아지를 청산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려 하였다. 이 두 개의 그릇된 편향들은 모두 중국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좌경》 및 우경 기회주의와는 반대로, 중국 혁명을 지도함에 있어서 모 택동 동지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확한 로선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 혁명 발전 단계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실천하면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의 혁명 과업들을 명백히 구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부단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실천하면서 두 혁명을 호상 긴밀히 련결시키며 민주주의 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후 즉시 중단이 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앞으로의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위한 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한 그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가 민주주의 혁명에서 공산당을 통하여 헤게모니를 튼튼히 틀어 쥐는 것은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승리와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성과적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으로 된다. 중국의 어느 한 부르조아 정당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 강령을 내놓지 못하였으며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주주의 혁명을 령도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총 로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 그리고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결속시키며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철저히 전개하는 것이였다. 이 총 로선은 모 택동 동지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 반관료 자본의 혁명》으로서 개괄되였다.

중국은 락후한 대국으로서 그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이 농촌 인구 중 70%가 빈농과 고용농들이였다. 때문에 농민 문제는 우리의 민주주의 혁명에서 중심 문제였다. 과거 중국의 반동 통치는 극히 야수적이였으며 인민 대중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다. 혁명가들은 대중적으로 검거되였고 살륙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22년 간이나 농촌에 깊이 침투하여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무장 혁명 투쟁을 지도하였다. 당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은사(恩賜)》하는 부르조아 정책과는 달리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된 력량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농민 자신들이 자기를 구원하며 지주를 타도하고 토지를 빼앗으며 그를 고수하도록 동원하는 《군중 로선》의 방침을 취하였다(당의 이 방침은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이후의 토지 개혁 과정에서도 계속 철저히 실행되였다). 이것은 당으로 하여금 농촌 지역들에 강력하고 믿음직한 혁명적 요새를 구축하며 혁명군과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며 광범한 빈농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혁명적 규률을 점차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준에로 제고시키며 또한 그들로부터 당과 당이 령도하는 인민군에게 요구되는 물적 및 인적 후비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농촌의 혁명 근거지들에 의거하여 혁명 전쟁을 진행하였으며 농촌의 혁명 근거지들에서 토지 개혁과 경제 및 문화 건설을 진행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이것들은 전국적인 승리를 준비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위대한 연습이였다. 이 연습은 대중을 교양하였으며 군대를 단련시켰고 혁명적 력량을 축적케 하였으며 간부를 양성하고 당의 지도부로 하여금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였다.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광범한 농민 대중 간의 가장 밀접한 동맹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부르조아지와의 혁명적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었다. 중국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우리는 중국 부르조아지의 두 부분을 옳게 구별하였다. 그 중 하나는 관료 매판 부르조아지인바 그들은 제국주의의 도구였으며 봉건주의의 수호자이며 동맹자였고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흉악한 원쑤였으며 따라서 그들과 견결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다른 하나는 민족 부르조아지였는바 그들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의 압박과 배척을 받았으며 그로 하여 민족 경제의 독자적 발전을 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에 참가하거나 혁명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취약성, 혁명과 반동에 대한 량면성으로 하여 항상 동요하는 중간적 립장에 서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들과 동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타협적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 전선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혁명 력량을 확대하고 중간 세력을 자기편에 쟁취하며 반동 세력을 고립시키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굳게 견지하였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결속시켰다.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간의 련계를 끊어 버리려고 한 우경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이 두 혁명을 한데 뒤섞어 놓으려던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우리의 혁명 위업에서 농민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조아지에 관한 문제도 옳게 처리할 수 없었다.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부르조아지에 대한 투항주의 로선을 추구하였으며 민주주의 혁명을 주요하게는 부르조아지가 할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로농 동맹에 의거하지 않고 주로 부르조아지와의 통일 전선에 의거하였으며 그리고 부르조아지와의 관계에서 그들은 부르조아지와의 동맹만을 주장하고 필요한 투쟁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포기하였으며 부르조아지가 혁명을 배반하는 정세하에서는 혁명을 실패에로 이끌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위업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 오게 하였다. 혁명의 조건이 이미 성숙되였고 그것을 판가리 싸움에 리용해야 했을 때에도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승리를 방해하려고까지 시도하였다.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각이한 계층의 소부르조아 대중 및 민족 부르조아지와 동맹하려 하지 않았으며 중간 세력이 공격의 주요 목표라고 그릇되게 간주하

였으며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각이한 중간 세력과 련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게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민족 부르죠아지에 대해서 오직 투쟁을 전개하였을 뿐 그들과 응당한 동맹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적들 간의 구체적인 모순도 리용하려 하지 않았으며 가장 주되는 적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거부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혼자서 싸우게 하였고 혁명이 승리할 수 없게 하였다.

《좌경》 기회주의자들과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농민의 혁명적 요구와 혁명적 견인성을 무시하였으며, 반동 통치 시기에는 우리가 농촌에 튼튼히 뿌리 박고 농촌에 혁명 근거지들을 창설하며 도시에 대한 농촌의 포위를 통하여 결국에는 도시를 탈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경》 기회주의자들과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례컨대 왕 명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제2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세번째 《좌경》 로선의 주요 대표자였는데 항일 전쟁 시기에는 우경 기회주의의 주요 대표자로 되였다.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좌경》 및 우경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전 당을 단합시킴으로써 중국 혁명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따라 발전하게 하였으며 혁명에서 계속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한 인민 혁명의 승리는, 과거 중국의 국민당 반동 통치와 그리고 인민을 압박하던 관료 및 군벌 기구를 철저히 분쇄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에 그 본질에 있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정권인 위대한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실현하게 하였다. 혁명의 가장 주되는 문제인 정권 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 혁명의 개시를 의미하였다.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민주주의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 통치권을 동시에 확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따로 전개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민주주의 혁명에서 우리의 종국적 목적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장기간에 걸친 민주주의 혁명 투쟁 전 행정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확립하며 공고화함에 깊은 주의를 돌린 결과인 것이다.

❊ ❊

전국적 승리 직전인 1949년 3월에 모 택동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 7기 중앙 위원회 제2차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혁명이 전국적 범위에서 승리한 후에도 주요한 대외적 모순은 여전히 중국 인민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으로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중국 인민을 일방으로 하고 지주 계급과 관료 자본가들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의 주요 모순이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속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기본 정책을 제시하였다. 전국적인 승리가 달성된 직후 몇 해 동안에 중국 인민은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물려 받은 과업 즉 주요하게는 전국의 광대한 지역에서 봉건 지주 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토지 개혁을 실시할 과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실지로는 이미 1949년에 시작되였다.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에 의거하면서 그리고 국가 권력을 통하여 관료 자본을 몰수하고 국가의 경제 명맥을 확고히 장악하였으며 강력한 사회주의적 국영 쎅또르를 적극적으로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쎅또르로 하여

금 전체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봉건 잔재를 청산하는 과업이 기본적으로 완수된 1952년 말에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과도기의 총 로선 즉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총 로선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차 실현할 과업과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점차 실현할 과업을 규정하였다. 이 총 로선이 제기되였을 때 중국 인민은 위대한 항미 원조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편으로 새 중국을 교살하려던 미 제국주의와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에서 전국 인민을 단합시켰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국내에서 중단 없이 계속 사회주의적 개조와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이 총 로선은 사회주의적 쎅또르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쎅또르 및 개인 경리 쎅또르도 포괄한 당시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단일한 사회주의적 경제 구조로 이행하도록 중국 사회를 인도한 로선이였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며 낡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혁명을 그만두고 사회주의적 쎅또르와 자본주의적 쎅또르의 병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총 로선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각종 우경적인 그릇된 견해를 배격하였다. 동시에 당의 이 맑스—레닌주의적 총 로선은 또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점차적이여야 한다는 것과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역시 점차적이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리하여 자본주의를 하루 아침에 깨끗이 없애 치우기를 희망한 그릇된 《좌경》적 견해를 배격하였다.

농업과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비추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부합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는 세 개의 호상 련속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첫 조치는 토지 개혁에 뒤이어 개인 경리의 기초 우에서 집단 로동의 호조 조직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성격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맹아인 이 호조 조직은 이미 혁명 근거지들에서 출현한 것이였다. 둘째 조치는 호조 운동에 기초하여 뒤이어 토지의 출자와 통일적 관리로 특징 지어지는 농업 생산 합작사를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토지와 주요 생산 수단이 아직 개인 소유로 되여 있는 이 합작사는 반(半)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였으므로 우리는 이를 초급 농업 생산 합작사라고 불렀다. 세번째 조치는 토지와 주요 생산 수단을 집단화하며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농업 생산 합작사를 창설하는 것이였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이다.

한때 우리 당내에는 농업 협동화 문제에 대한 각이한 견해 간의 론쟁이 있었다.

그 중 한 견해는 우리의 공업화 수준이 아직 매우 낮으며 농업의 기계화를 실시할 처지에 있지 못하므로 농업 협동화를 급속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제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분쇄하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계화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농업 협동화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또 하나의 견해는 협동화의 급속한 실현이 불가피하게 농업 생산을 저하시키리라는 것이였다. 제 사실에 의해 이러한 견해도 이미 분쇄되여 버렸다. 농업 협동화 과정에서와 협동화 이후에 있어서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은 저하되기는커녕 계속 장성하였으며 아주 빠른 템포로 장성하였다.

다른 또 하나의 견해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는 것은 농민과의 단결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것이였다.

다시 말하면 부농들 외에 부유한 중농들까지도 우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지어 우리를 반대할 것이며 오직 비교적 빈곤한 농민들만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였

다. 제 사실은 이러한 견해도 역시 분쇄하여 버렸다. 부유한 중농과도 단결하는 우리의 정책에 의하여 대형 농기구들과 역축을 가지고 합작사에 가입한 부유한 중농들에게는 농기구와 역축에 대한 대'가를 년부로 지불하는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합작사의 생산이 해마다 증대되였기 때문에 부유한 중농의 압도적 다수는 기본적으로 농업 협동화에 만족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쇠는 단김에 두다리라》는 원칙에 의하여 우리가 토지 개혁에 뒤이어 조금도 정지함이 없이 직관적인 모범을 보여주며 그것을 점차 보급하는 방법으로 농업 협동화를 진행한 것은 훌륭한 맑스—레닌주의적 정책이였다는 것을 제 사실은 증명하여 준다. 만일 우리가 토지 개혁 후에 혁명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농촌에서 자본주의의 자연 발생적 세력이 장성하는 것을 방임하였고 농민이 두 개의 극단에로 분화하는 것을 허용하였더라면 그 후에 농업 협동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저항과 훨씬 더 큰 난관에 봉착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였는가? 우리는 자본주의적 공상업에 대해서 주요하게는 리용, 제한 및 개조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자본주의의 각종 형태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 자본주의의 초급 형태는 사자본주의적 공업 기업소들에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의 가공 및 제조를 주문하며 그들이 제조한 제품을 계약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판매 및 수매하는 것이다. 사자본주의적 상업 기업소들에 대하여는 국영 상업을 대신하여 위탁 판매 또는 위탁 소매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국가 자본주의의 고급 형태는 사자본주의적 기업소들을 공사 합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별적 기업소들의 공사 합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전체 부문별 공사 합영으로 전환시키고 일정한 기간 자본가들에게 일정한 리자를 지불한다.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도 우리 당내에는 각이한 견해 사이에 론쟁들이 또한 존재하였다.

그 중 하나는 자본주의적 공상업을 리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한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느니 또는 우리가 지나친 제한을 가했다느니 개조를 너무 조급히 수행하였다느니 하는 견해였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제도를 오래 동안 보존하려는 기도였다.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와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 제도는 한 사회 내에서 오래 동안 병존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한 제도가 다른 제도를 타승해야 한다.

견해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공상업에 대한 개조를 점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 속매(贖買)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부르조아지에게 선거권을 주고 부르조아지의 대표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준 데 대하여 《지나친 타협》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주장자들은 중국 혁명이 승리한 후에 민족 부르조아지와 통일 전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칙상 용허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우리가 민족 부르조아지에 대하여 지주 계급과 관료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취한 것과 동일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즉 다시 말해서 민족 부르조아지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인민 경제로부터 자본주의적 공상업을 급속히 몰아내는 단순한 정책을 취하며 자본가들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정한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하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에게 속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은 칼 맑스와 웨. 이. 레닌이 여러 번 말한 바이다.

웨. 이.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부르조아지로부터 선거권을 반드시 박탈할 필요는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는 민족적인 특수한 문제이지 독재의 일반적 문제가 아니다》 (레닌 전집, 제 28권, 조선문판, 314페지).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모순에 대하여 《계급 조화》 정책을 실시한 것이나 아닌가? 물론 아니다. 이러한 의문은 맑스—레닌주의에 완전히 암둔한 데로부터 나오는 오해이거나 곡해이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민족 부르조아지와 련합하면서 동시에 투쟁하는 정책은 《계급 조화》 정책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매우 확고한 프로레타리아 계급 정책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승리는 이것을 완전히 증명하였다.

요컨대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반항 세력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 개조 과정에서 자본주의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복무하게끔 조건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진행에 리익을 주었다. 그 결과 우리는 생산 수단의 소유면에서 자본주의를 철저히 청산할 수 있었으며 또한 부르조아 분자들은 자기 로력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로 점차 개조되게 되였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되는 훌륭한 맑스—레닌주의적 정책이다.

농업과 자본주의적 공상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한 점차적 이행의 방법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조의 기간을 연장시키지는 않았다. 반대로 개조는 매우 빨리 수행되였다. 1955년 하반기까지에 우리는 이미 고급 형태의 농업 협동화를 완성하였으며 곧 뒤이어 1956년에는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전체 부문별에 걸친 공사 합영을 실현하였으며 동시에 수공업의 협동화도 완성하였다. 이것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지 7년도 못 되는 기간 내에 우리가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생산 수단의 소유면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의 아무런 파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공업과 농업 생산은 부단히 장성하였다.

* *

생산 수단 소유면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것으로써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끝났는가? 일부 사람들은 혁명이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혁명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인정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혁명은 계속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자본가들은 여전히 고정 리자를 받고 있다. 경제적 면으로 볼 때 두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모순은 아직 완전히는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적 면에서 부르조아지가 계급으로서 완전히 소멸된 이후라 할지라도 부르조아 세계관,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영향, 부르조아적 및 소부르조아적 관습의 힘은 사회주의 제도에 저축되면서 오래 동안 존속할 것이다. 특히 부르조아 우파는 이러한 사정을 리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를 공격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부활을 피할 수 있다. 때로는 그들의 공격이 아주 발광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경제 분야에만 국한시킬 수 없으며 정치적, 사상적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 택동 동지는 자기의 저서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데 대한 문제에 관하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계급 투쟁, 각이한 파들의 정치 세력 간의 계급 투쟁 그리고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의식 형태 분야에서의 계급 투쟁은 장기적인, 곡절이 많은, 때로는 지어 매우 첨예한 투쟁으로 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세계관으로써 세계를 개조하려 하며 부르조아지도 자기의 세계관으로써 세계를 개조하려 한다. 이 면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느냐, 자본주의가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진정하게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맑스주의

자들은 아직 전체 인구 중에서나 인테리 중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정치적, 사상적 투쟁은 과도기 전 기간을 통하여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마치 파도의 기복과 같이 때로는 고조되고 때로는 퇴조되며 때로는 첨예화되며 때로는 비교적 완화된다. 이러한 투쟁은 부르죠아지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이 종국적으로 소멸될 때 비로소 소멸된다.

모 택동 동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각이한 성격을 띤 두 가지 모순 즉 적아 간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을 구별하여야 하며 이 두 가지 모순을 대함에 있어서와 그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이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백화 제방, 백가 쟁명》의 방침을 제기하였다. 1957년에 우리 당은 인민 내부의 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한 정풍 운동을 전 당적, 전 인민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부르죠아 우파의 발광적인 공격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인민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은 대단히 앙양되였으며 정치 사상 분야에서의 착취 계급들의 반동적 영향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극히 약화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우리 당은 《정치 위수》의 방침을 내놓았으며 경제 및 기타 각종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상부와 하부 및 기타 분야들에서의 호상 관계들을 조정하였다. 동시에 당은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사상을 해방시키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말하며 대담하게 실천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을 발양시키자》는 구호를 전국 인민에게 제시하였으며 혁명적인 실험들과 대중적인 창의 및 발명을 장려하였으며 대중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를 개정 또는 페지하도록 지도하였다. 교육 부문에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은 교육을 프로레타리아 정치에 복무케 하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시키는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 모든 혁명적 조치들의 결과 모 택동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은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 규률과 자유, 의지의 통일, 유쾌하고 생기 발랄한 개인의 심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치 정세》가 우리 나라에서 나날이 광범하게 발전되고 있다. 1958년 봄에 우리 당은 《고도로 열의를 높이며 앞장서기에 힘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는 총 로선을 제때에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총 로선에 고무된 전국 인민은 열의가 비등되고 사기가 왕성하게 되였으며 그리하여 1958년에 인민 경제에서는 대약진이 이룩되였으며 전체 농촌에서는 인민 공사화가 실현되였다. 과학, 기술, 문화 및 교육 발전에서도 미증유의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력을 철저히 해방시켜 얻어진 결과이다.

두 가지 형태의 모순의 차이와 대약진 및 인민 공사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는 각이한 견해 간의 론쟁이 있었다. 모 택동 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정확한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당내의 각종 그릇된 견해들을 분쇄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 당과 전국 인민을 단결시킬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위업에서 새로운 승리들을 계속 쟁취할 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과도기에 있어서 적아 간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리해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내부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리해하기 곤난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두 가지 모순 즉 적아 간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 사이에 계선을 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두 가지 모순 사이에 명백한 계선을 긋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의 계급 투쟁을 정확히 진행함에 있어서와 그리고 계급 투쟁의 범주에는 들어 가지 않는 근로 인민 내부의 각종 모순을 정확히 처리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현 시기 중국에는 적아 간의 모순 뿐만 아니라 근로 인민 내부의 수 많은 모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례를 들면 로동 계급과 농민 간,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에서 산생되는 모순, 근로 인민 내부에 남아 있는 착취 계급의 관습적 및 사상적 영향으로 하여 산생되는 모순 등등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 토대와 상부 구조 간의 모순, 인민들의 인식에서의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선진적인 것과 락후한 것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모순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와 같은 모순들은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순들의 성격 및 해결 방도가 계급 사회에서의 모순의 성격 및 해결 방도와 근본적으로 다를 뿐이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또는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선 후에 있어서 인민 내부에는 모순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맑스—레닌주의에 위반되는 완전히 그릇된 견해인 것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모순들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표현될 것이며 우리의 당내 생활에도 필연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순들을 옳게 인식하고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적대적인 반사회주의 세력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으며 부르죠아지와 소부르죠아 상층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으며 인민 내부의 관계들을 조정하고 우리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 및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순의 통일과 투쟁, 모순의 해결은 여전히 사회적 진보의 추진력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 각이한 성격을 띤 이러한 두 가지 모순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릇된 편향들이 산생될 것이다. 즉 적아 간의 모순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적아 간의 모순을 인민 내부의 모순으로 간주하며, 이 적아 간의 모순에 대하여 독재의 방법 즉 고립, 분리, 징벌, 진압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을 처리하는 방법을 적아 간의 모순을 처리함에 적용하는 등——이 모든 것은 필연코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인민 내부의 모순을 보지 못하며 적아 간의 모순을 과장하거나 또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아 간의 모순으로 간주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방법 즉 《단결에 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판과 투쟁을 통하여 모순들을 해결하며 그리함으로써 새로운 토대 우에서 새로운 단결을 달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적아 간의 모순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인민 내부의 모순을 처리하는 즉 설복의 방법 대신에 강압의 방법을 적용하는 이 모든 것도 역시 필연코 오유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러한 두 가지 모순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호상 전화될 수 있다. 모순은 전화되였는데 우리의 처리 방법은 그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면 또한 불피코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동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오유를 범한 구체적 실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리해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백화 제방, 백가 쟁명》의 방침을 적용한 데 대하여 부르죠아적 《자유주의》의 정책 또는 소위 《자유화》 정책이라고 말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면 반(反)사회주의적 독초를 조장케 하며 부르죠아 사상을 만연케 하지나 않을가 하여 념려한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방침을 실시하는 것은 당의 령도와 대다수의 인민 대중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이 방침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확고 부동한 계급 정책을 실시한 것이지 부르죠아적 《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과

학과 예술 및 문화의 개화 발전을 촉진시키며 맑스주의와 그의 지도하의 사회주의적 의식 형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방침을 취하였다.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이 사회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때에 이와 같은 방침을 취한 목적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격파하여 부르죠아지의 영향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지 부르죠아 사상의 자유로운 범람을 용허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방침은 또한 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민 내부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데도 적용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맑스주의 사상은 여전히 온갖 종류의 비맑스주의 사상과의 투쟁 속에서 발전해야 하며 사회주의 사상은 각종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반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민 내부의 각이한 의견이 충분히 표명되도록 해야 하며 비판과 설복의 방법을 적용하며 충분한 론쟁을 진행함으로써만 정확한 의견을 옳게 발양시키고 그릇된 견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들을 옳게 해결할 수 있다.

부르죠아지가 이 《백화 제방, 백가 쟁명》의 방침을 반(反)사회주의적 활동에 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중국의 현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모든 분야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르죠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투쟁에 이 구호를 리용한다 하여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 부르죠아지의 반(反)사회주의적 언사와 행위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 정원에서는 사회주의의 백화가 만발하여야 하며 반(反)사회주의적 독초는 마땅히 제거되여야 한다고 항상 공개적으로 말하여 왔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반(反)사회주의적 독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르죠아지의 정치 사상적 영향이 완전히는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반(反)사회주의적 부르죠아 독초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매양 향기로운 사회주의의 꽃으로 가장하여 나서고 있다. 사람들이 독초와의 투쟁에서 경험이 부족할 때 그들은 때때로 이러한 독초를 향기로운 꽃과 잘 분간하지 못한다. 지어는 가장한 반(反)사회주의적 독초를 향기로운 사회주의의 꽃으로 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문화 사업의 일부 부문들에서 어떤 동지들은 한때 독초들이 나타날가 두려워한 나머지 향기로운 꽃이라고 생각한 것만을 자라게 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에 유익한 많은 향기로운 꽃들이 독초로 잘못 간주되여 제압을 당하였다. 반면에 수 많은 유해로운 독초들이 정체를 가장하고 은밀히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동지들의 견해는 그릇되고 유치한 것이였다. 사실인즉 지하에 은페되였거나 가장하고 목전에 나타난 반(反)사회주의적 독초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더욱 유해로운 것이다. 반(反)사회주의적 독초가 본래의 면모를 표면에 드러내 놓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니며 반대로 아주 좋은 일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민 대중이 독초를 식별하는 능력을 단련시킬 수 있으며 독초와 투쟁하는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회주의의 백화를 만발케 하고 반(反)사회주의적 독초를 제거할 데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7년에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부르죠아 우파와 투쟁하였으며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우파의 발광적 진공을 격퇴하였다.

제 사실은 《백화 제방, 백가 쟁명》의 방침이 사상 령역에서의 맑스주의의 령도적 지위를 추호도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그것을 보다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동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민 대중의 능력을 제고시켰으며 그 능력을 추호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의 현 조건하에서 이 방침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유리하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 정[illegible]에 불리한 것이다.

* *

1958년에 중국 인민은 인민 경제에서 대약진의 국면을 이룩하였다. 사람들은 이 대약진의 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1958년 대약진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경제 건설에서 군중 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생산 질서에서의 혼란을 가져올 뿐이며 또한 일시적인 약진이 이루어질지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인민 경제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인민 경제에서 약진을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경제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중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결국 좋은 일인가, 좋지 못한 일인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수백 수천만 인민의 자각적인 사업인 것이다. 대중의 창조적 정력이 충분히 발휘됨이 없이 활발하게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방되고 단결되고 조직된 우리 나라의 6억 5천만 인민은 실로 위대한 창조적 력량이다. 지난 해에 있은 철 및 강철 생산을 위한 군중 운동에서 수천만 인민들이 침식을 잊었으며 물질적 보수에 관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용감하게 새 생활을 창조하는, 사기 충천하고 무궁무진한 힘이 솟구치는 공산주의적 정신을 발휘하였다. 바로 이러한 결과로 우리 나라의 금속 공업은 전국에 점차 합리적으로 배치되게 되였으며 그의 발전 속도가 촉진되였다. 대규모적인 군중 운동을 통하여 그리고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에 의하여 우리는 현재 전국 각지에 널려 있는 무수한 중 소 규모의 관개 공사들과 수십만 개의 중 소 기업소들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앞선 사람과 경쟁하며, 앞선 사람을 따라잡으며, 앞선 사람에게서 배우자!》라는 구호하에 대중을 동원하며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기업소들에서 생산 능력과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많은 기본 건설 공사들이 자금을 현저히 절약하면서 기한 전에 완공될 수 있었다. 제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 전선에 광범한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인민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군중 운동의 출현은 결코 일시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빈궁하고 락후한 면모를 급속히 개변하는 것은 우리 나라 6억 5천만 인민의 강렬한 념원이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그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만큼 그들의 이 념원은 불가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력하고 불가항력적인 격류로 전변되고 있다. 정확한 령도하에서 이 군중 운동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부단히 작용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우리의 군중 운동은 당의 중앙 집권적인 지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당의 지도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키며 대중에 대한 정치적 교양과 물질적 관심을 결합시키며 정치를 뇌수로, 통수적 력량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광범한 대중적 운동을 조직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건설 사업에서 인민들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당의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우리는 고도의 열의를 다하여 앞장을 다투기에 힘쓰도록 대중을 항상 고무할 수 있으며 기술 혁명 및 문화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동자, 농민, 기술자들에 의거하여 보다 현대적인 생산 도구를 부단히 도입하며 생산에서의 현대적 기술의 적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약진은 항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바 없다.

군중 운동이 진행된 후에는 일부 기존 생산 질서들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군중 운동은 생산 발전을 자극하지 못하는 낡은 질서만을 파괴하며 동시에 생산 발전에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다. 1958년에 우리는 군중 운동을 통하여 기업소들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로동자들이 관리 사업에 참가하며 간부들이 생산 로동에 참가하는 제도와 또한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지도적 간부들과 로동자들 그리고 기술 일'군 및 관리 일'군들의 사업을 각 방면에서 밀접히 결합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들을 적절한 령도 밑에 변경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관리 및 생산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사회주의 제도는 항상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낡은 질서를 일정한 령도하에

개변하며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발전시키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 생산력 발전을 저애하는 전통적인 관습의 힘과 투쟁하여야 하며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를 계속 조절함으로써 그것들이 발전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수요에 적응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기술 혁신과 기술 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적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인민 경제에서의 계속적인 약진을 보장할 수 있다.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지에 있어서는 **오직** 사회주의로부터**만이** 주민의 **다수**의 참가하에 그리고 다음에는 전체 인민의 참가하에 사회적 및 개인적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신속하고 실제적이고 참으로 대중적인 전진 운동이 시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죽은, 응결된, 영원히 고정된 것이라고 하는 흔히 보는 부르죠아적 관념이 얼마나 한없이 그릇된 것인가를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레닌 전집, 제 25권, 조선문 판, 606페지). 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군중 운동이 전개되였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다. 군중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군중 운동 밖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억제하며 락망과 원망 및 비관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들은 전적으로 공산당원이 가져야 할 정열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르죠아 귀족적인 태도로써 군중 운동을 대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약진의 속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객관적 경제 법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인민 경제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약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궤도 우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물론 객관적 경제 법칙은 위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 객관적 경제 법칙을 위반하면 인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우리 당의 총 로선은 《동시적 발전》이라는 일련의 방침을 포괄하고 있다. 즉 그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조건하에서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중공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며 중앙 집권적 지도, 전면적 계획화, 분공 및 협조의 조건하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대규모 기업과 중소 규모의 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현대식 생산과 재래식 생산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일련의 방침을 《두 다리로 걸어 가는》 방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방침을 취함으로써 경제 건설의 약진에서 각종 편향——례컨대 공업만을 중시하고 농업을 홀시하는 것, 중공업만을 중시하고 경공업을 홀시하는 것, 대규모 기업만을 중시하고 중소 기업을 홀시하는 것, 공업에 대한 중앙의 통일적 관리만을 중시하고 공업 발전을 위한 지방의 적극성을 홀시하는 것, 현대식 생산만을 중시하고 재래식 생산을 홀시하는 것 등의 편향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총 로선이 바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객관적 가능성과 주관적 능동성을 결합시키며 각종 균형에 류의하며 객관적 경제 발전 법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대약진에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 간, 공업과 농업 간, 중공업과 경공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은 총괄적으로 말하여 모두가 조화되여 있으며 서로 상응되여 있다. 비록 개별적, 국부적 또는 일시적으로 균형이 상실된 현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신속히 시정하였다. 이러한 개별적, 국부적, 일시적인 불균형 현상은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나타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당의 총 로선과 《동시적 발전》의 일련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 집행하면 장기적이며 전면적 성격을 띠는 불균형 현상의 발생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이 호상 조화적으로 발전하도록 인민 경제의 계획화 사업을 훌륭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높은 발전 템포와 종합적 균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발전 템포가 높으면 부분적인 불균형적 현상이 비교적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앞길에서 범을 두려워하고 뒤'길에서 승냥이를 두려워하는》 격으로 안일을 취하면서 속도를 부당하게 낮추어 균형만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의 깊게 경험을 총화하고 객관적 법칙들을 심중히 연구하기만 한다면 높은 템포 속에서도 능히 균형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발전 속도는 매년 동일할 수는 없다. 어떤 해는 좀 높고 어떤 해는 좀 낮은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해마다 장성할 뿐만 아니라 약진적인 발전 속도를 견지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 ❊

대약진과 군중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우리 나라 농촌의 인민 공사도 비난하고 있다. 인민 공사는 《시기 상조이며 실패하였다》느니, 《사회 발전 수준과 인민 대중의 각오 정도를 초월하였다》느니 하는 그들의 비난에는 아무러한 실제적인 근거도 리유도 없는 것이다.

인민 공사의 발전이 객관적 필연성을 띤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인민 공사는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를 토대로 하여 발전한 새로운 사회 조직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수억만 농민 대중은 생산력 발전의 수요에 적응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 조직 형태를 창조한 것이다. 인민 공사는 작년의 대약진 운동에 있어서 농업 생산과 관개 수리 공사의 대대적인 발전 그리고 공업 창설을 위한 농민들의 열성과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의 현저한 제고의 결과에 산생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광범한 농민 대중은 관개 시설, 공업의 창설, 농업에서의 다각적인 경리와 비교적 대규모적인 각종 생산 분야에서의 로력 협조가 모두 종래의 농업 생산 합작사의 규모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래의 합작사를 토대로 하여 이것을 더 한층 발전시키며 어떠한 새로운 생산 관계와 새로운 조직 형태를 창설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인민 공사이다.

수천 호 또는 1만 호가 넘는 인력과 수만 무 또는 십만 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인민 공사는 보다더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자연 부원을 리용하여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농업에서의 기계화와 전기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함에 유리하다. 농민 대중에게 긴박하게 요구되는 문화 교육 사업과 집단적 복리를 위한 사업도 인민 공사에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공동 식당과 탁아소 등 기타 집단적 복리를 위한 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많은 로동력이 절약되였는바 특히 녀성들의 로동력이 대대적으로 해방되였다. 농촌 인민 공사가 창설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실천 과정에서 그의 위대한 생활력은 남김 없이 발휘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공사화 운동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촌의 빈궁하고 락후한 면모를 개변시키려는 중국 농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위대한 군중 운동이며 중국의 현 조건하에서 력사 발전 법칙에 적응한 군중 운동이다. 이와 같은 운동은 어느 누가 소리를 쳐서 나타나게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반대한다 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의 인민 공사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소유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와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인민 공사 조직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 공사가 종래의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의 토대에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서 량자 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민 공사 내에서는 공업, 농업(여기에는 농산업, 림업, 축산업, 부업, 어업이 포함된다), 상업, 교육, 군사가 서로 결합되고 있으며, 생산을 조직하는 동시에 생활 조직도 하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기층 국가 정권 기관과 공사 관리 기구가 통합되여 있는바 이 모든 것은 종래의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에서는 있어 보지 못한 것들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인민 공사의 소유 형태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소유 형태이고 생산대(원래의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와 같다)의 집단적 소유가 기본적인 것이며 공사의 소유는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적인 인민 공사의 소유는 원래의 농업 생산 합작사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전 인민적 소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 공사는 매년 생산대의 축적의 일부를 리용하는 공사 소유 기업소의 운영, 그 기업의 발전 그리고 공사에 대한 국

가의 원조로써 공사 소유의 부분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으며 공사 소유를 기본적인 것으로, 생산대의 소유를 부분적인 것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현재 공사의 소유는 비록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나 바로 이 부분적인 공사의 소유는 인민 공사의 위대한 희망과 위대한 전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인 공사 소유가 공사의 기본적인 소유 형태로 전환한다면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소유가 사회주의적인 전 인민적 소유로 이행하는 믿음직한 토대로 될 것이다.

인민 공사의 분배 제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로동에 의한 분배로 되는 로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수요에 의한 분배의 맹아적 성격을 띤 부분적인 무료 공급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이것 역시 원래의 농업 생산 합작사에는 없었던 것이다. 많은 인민 공사들에서 적절한 부분의 무료 공급 제도(일반적으로 공사 사원 총 수입의 20~30%를 차지하는)가 실시되고 있는바 현재 그의 주요한 역할은 로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과 아동들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 보험을 실시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과 부담이 비교적 많은 가정을 방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또한 농민 대중의 현재의 실제 생활의 수요에 적응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아직 공산주의적인 수요에 의한 분배 원칙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민 공사는 그 성격에 있어서 오직 공산주의적이여야만 하기에 완전한 수요에 의한 분배 원칙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인민 공사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 조건하에서 인민 공사를 창설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공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 공사에 대하여 완전히 기계적으로 리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 농촌에 현재 존재하는 인민 공사들이 상술한 모든 특징들을 가진 사회 기층 조직의 한 형태라는 것, 따라서 이 사회 조직 형태는 극히 커다란 신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의 각이한 수준의 생산력과 이에 상응하는 각이한 수준의 생산 관계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 사회 조직 형태는 현재의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소유에 부합되며 미래의 사회주의적인 전 인민적 소유에도 부합될 것이다. 그것은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는 현 사회주의 제도에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는 미래의 공산주의 제도에도 부합될 것이다. 인민 공사라는 이 사회 조직 형태는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에로 들어 간 후에도 적합한 기층 사회 조직 형태로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온갖 근거가 있다. 모 택동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 공사 제도는 하나의 발전 행정인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인민 공사라는 이러한 사회 조직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시킬 수 있으며 한편 사회 경제의 발전은 또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인민 공사 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인민 공사라는 이 사회 조직을 가짐으로 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소유로부터 사회주의적인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할, 그리하여 앞으로 농촌에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할 길을 실지에 발견하였다. 인민 공사가 창설되자마자 곧 인민 공사의 모든 리상이 다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인민 공사가 점차적인 발전 과정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공사의 창설이 시기 상조하다고 생각하거나 창설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또 이미 창설된 것이라도 해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없이 완전한 오유인 것이다.

우리의 대약진과 인민 공사를 비난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 로선을 비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총 로선을 비난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대렬 내에서 이러한 자들은 바로 우경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당내의 부르조아 사상의 대표자들이다. 국내외의 적대적 세력들이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당 중앙 위원회가 이미 오래 전에 적발 시정한 사업상 일부 결함들을 구실로 하여 우리 사업에서의 위대한 성과들을 부인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마치 무서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위업의 전진을 방해하며 금년의 계속적인 약진을 저애하며 당의 총 로선의 철저한 실행을 저애하려고 시도하였다. 당 제 8기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주되는 위험은 우경 기회주의라고 지적하였다.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우경 기회주의를 극복하며 그의 영향을 일소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당 앞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과업이다.

* *

우리 당의 총 로선은 정확하며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거대하다. 현재 우리는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 8기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의 호소에 호응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은 증산과 절약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켰다. 이것은 국내외의 적대적 세력들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답으로 되는 동시에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우리의 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중국 인민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함께 호흡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위업이 전 세계 사회주의 위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다. 중국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우리에게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 근로 인민들과 각국의 진보적 력량도 우리에게 거대한 동정과 지지를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날로 강화 발전되는 불패의 친선 단결을 맺고 있다. 우리의 구호는 이러하다: 《중국 인민의 위대한 단결 만세!》, 《전 세계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 만세!》. 이 두 위대한 단결의 지지에 의거하고 있는 우리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맑스—레닌주의가 가지는 정당성의 새로운 실증으로 되며 또한 그의 새로운 승리로 된다. 맑스주의는 오직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느니, 서방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동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느니 하는 견해들이 한때 있었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중국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마치 맑스주의는 동방 국가들에만 적용될 수 있고 서방 국가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새로운 견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주장은 부르조아 반동들과 그의 종복들의 궤변이다. 사실에 있어서 맑스주의가 출현한 후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나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에서나, 서방에서나 동방에서나를 막론하고 매개 력사적 사변들과 매개 혁명적 경험들은 맑스주의의 정확성을 거듭 새로이 실증하고 있다. 각국에서의 인민 대중들의 투쟁과 혁명은 각이한 력사적 환경과 각이한 력사적 조건하에서 일어났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혁명이 아무리 복잡하고 우여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의 궤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나라도 맑스주의가 가리키는 공통적인 력사의 궤도를 떠나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한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당이다. 모 택동 동지는 이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의 결합》이라는 유명한 말로 개괄하였다. 모 택동 동지의 지도하에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령활하게 적용함으로써 중국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맑스—레닌주의가 6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동방 대국에서 광범히 전파되여 혁명 사업과 건설 사업의 수행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맑스—레닌주의 발전 력사에서 하나의 대사변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의 혁명과 건설은 자기 나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요한 어떤 특수성들은 다른 일련의 나라들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경험은 일정한 정도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자!

맑스—레닌주의의 전 세계적 승리 만세!

(《평화와 사회주의 제 문제》 1959년 10호에서 전재)

1945년 10월 우리 당 창립 대회에서 채택된 당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에 대하여

강 영 탁

맑스주의 당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시대의 지혜이며 영예이며 량심이다.

로동 계급에게는 부르죠아지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며 여하한 환경 속에서도 용감하게 끝까지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을 고수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 요구된다.

조선 로동 계급과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력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당을 창건하고 그에 의한 정확한 정치적 령도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1925년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선포하였던 조선 공산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한 채 3년 간의 짧막한 력사를 남기고 종파 분자들의 분렬 책동과 일제 경찰의 간악한 파괴 활동으로 말미암아 해산된 이후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조선에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새 형의 당을 창건하여야 할 새로운 력사적 임무가 제기되였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이 긴박한 력사적 임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국내외의 공산주의자 핵심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이 투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백만 대군을 반대하는 가혹한 무장 항쟁 속에서 국제 국내 혁명 력량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서 장구한 기간 계속되였는바 이 행정에서 장차 조선에 견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새 형의 당이 창건될 수 있는 조직적 및 사상적 기초가 튼튼히 구축되였다.

그러나 조선 혁명 발전을 위하여 불리하게 전개되였던 당시의 제반 정세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당 창건의 력사적 위업을 결속 짓고 준비 있게 조국 광복의 대사변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일제는 동방에서 패망 당하였고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은 해방되였다. 동시에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터진 화산 처럼 앙양되였다.

이러한 정세의 변동은 조선 혁명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는 바 이 변천된 환경 속에서 당 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와 합세하여 일제 강도들을 격멸하면서 전우들과 함께 고국에 개선한 김 일성 동지는 국내외 각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조성된 제반 정세를 면밀히 타산하면서 당시의 선차적 혁명 과업으로서 통일된 혁명적 당을 시급히 창건하는 문제를 내세웠다.

이것은 조선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다음과 같은 레닌의 교시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직 이외에 다른 무기는 없다》(전집, 조선문 판, 제 7권 제 2분책 387페지).

해방 후 통일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은 극히 어려운 과업이였다.

그것은 당 창건을 위한 활동의 시기성과 해

방 직후 조성된 혁명 정세의 복잡성 및 주체적 력량의 준비 정도로서 설명된다.

조선에서의 당 창건 문제는 혁명 정세의 발전에 비하여 그 해결에 있어 이미 뒤떨어져 있었다. 《왜냐 하면 폭발과 발화의 순간에 조직을 창설해서는 벌써 늦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의 활동을 곧 전개하도록 이미 준비되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레닌 전집, 조선문 판, 제 5권 제 1분책, 7페지).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된 조건하에서 새 사회 건설을 지도하며 또한 국내외의 반동 세력과 직접 대치하여 대중을 전취하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 조직 동원하는 어려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당 창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었다.

또한 근로 대중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보급이 극히 미약하며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핵심이 아직 많지 못한 조건하에서 광범한 당원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하여 교양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소화시키며 그들 속에서 많은 간부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당 창건 사업을 극히 곤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통일된 맑스주의 당 창건 사업을 가장 곤난하게 한 것은 조선 공산주의 대렬 내에서 조직—사상적으로 종파주의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였던 그것이였다. 과거 종파적 책동으로 조선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화요파》, 《엠엘파》, 《서울파》, 《서상파》 등의 종파 분자들은 력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해방 후에도 종파 행동을 계속하면서 공산주의 대렬을 분렬시키였다.

서울 한 골목에서는 《엠엘파》에 속하였던 자들이 하루'밤 사이에 꾸며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소위 《공산당》(세칭 《장안파》) 간판을 내흔들고 있었으며 이와 대립하여 다른 골목에서는 《콩크룹》과 종파적으로 결탁한 《화요파》 분자들인 박 헌영 간첩 도당과 그의 추종자들이 비법적 음모적 방법으로 뒤'고방에서 조작해낸 소위 《공산당 중앙》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좌우경적 구호를 들고 나와 상대방을 서로 시비 조롱 반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박 헌영 간첩 도당은 자기의 졸개들을 북반부 각 지방에까지 파견하여 북반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종파 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지방 분할과 당내 《헤게모니》 쟁취를 위하여 광분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분렬 책동을 일삼는 종파 분자들과 복잡한 사상적 및 조직적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이 없이는 통일된 맑스주의 당의 창건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이 외에도 곤난성들은 중첩되여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상과 같은 제반 애로와 곤난을 깊이 료해한 기초 우에서 조선 혁명의 참모부로 될 통일된 맑스—레닌주의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을 기동성 있게 조직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선 통일적 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공산주의 대렬 내에 잠입한 불순 이색 분자들과 종파 분자들의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 경향들과 분렬주의적 책동을 반대하고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맑스—레닌주의적 조직—사상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당을, 각처에 분산되여 있는 전체 당 단체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는 광범한 포괄적인 조직으로 만들며 그를 엄격하게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 우에서 건립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대표들로써 구성된 당 대회를 소집하고 그에서 유일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는 동시에 당 중앙 지도 기관으로서 당 중앙 위원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는 방법으로 통일적 당을 창건할 것을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어디까지나 쏘련 군대가 진주한 북조선이 혁명의 근거지로 되여야 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당 중앙 지도 기관을

북조선의 중심지인 평양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 창건을 위한 이상과 같은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업을 수행하며 앞으로 소집될 당 대회에서 당 중앙 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각급 당 단체들에 대한 정치 사상적 및 조직적 지도를 담당하는 합법적인 당 중앙 지도 기관으로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우선 창설할 것을 제기하였다.

통일적 당 창건을 위한 이러한 제 방침은 당시의 혁명 정세하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것이였다.

그러나 혁명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통일된 혁명적 맑스주의 당의 창건을 진심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던 종파 분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이 현명한 당 창건 방침을 완강하게 반대하여 나섰다.

초시기에 지어 박 헌영 간첩 도당은 당 창건 문제에 관하여 호상 협의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제의마저 거절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국제 국내의 극악한 반동의 마수가 집중된 서울에 당 중앙을 둘 것을 한사코 고집하면서 《서울만은 떠날 수 없으며》, 《서울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혁명을 말아 먹으면서까지라도 자기들의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이외 다른 것이 아니였다.

따라서 그들은 합법적인 당 지도 기관으로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할 데 대한 절실한 제의에 대하여서도 반항하여 나섰다.

서울에 있던 박 헌영 간첩 도당은 자기들이 이미 점유한 《지위》와 《령도권》을 상실할 우려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설을 환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치명적 타격으로 된다고 간주하였다. 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자들은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설을 반대하면서 《당을 분렬시킨다》, 박 헌영의 소위 《서울 중앙》을 《지지》한다고 떠들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설을 기여코 반대한 진심은 《서울 중앙》을 지지하자는 데 있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당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령도를 벗어나서 매개 지방을 분할하여 그곳에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하는 《독립 왕국》을 만들자는 데 있었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동시에 당 대회의 소집을 사실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들은 감히 직접적으로는 당 대회를 소집하여 모든 문제를 처결할 데 대한 정당한 제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당 대회 소집을 태공하였으며 끝내 파탄시키고 말았다.

그것은 자기들의 반혁명적 반당 종파 집단이 당 대회를 통하여 폭로 규탄 분쇄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의 여하한 발악도 기타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공산주의자 핵심의 통일된 당 창건 활동을 파탄시킬 수는 없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 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지방 당 단체 핵심 간부들과 기타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 토의하였다.

이러한 회합을 통하여 그는 해당 당 단체들의 활동 정형, 당 지도 간부들의 정치 사상적 견해를 비롯하여 제반 실정을 깊이 료해 장악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당면 정치 정세, 당 로선상 및 정책상 문제들, 당 창건 방도 등을 해설 설득시키며 통일적 당 창건을 방해하는 온갖 반맑스주의적, 비당적, 종파적 사상 경향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 학생 청년 군중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적극 쟁취하기 위한 대중 정치 공작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또한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자 핵심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군중 속에서 정치 공작을 수행하는 한편 당 창건을 위한 강한 조직—사상적 투쟁을 전개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의 당 창건 방침은 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선진적인 로동 대중 속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으며 그는 자기 길을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력사적인 우리 당 창립 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는 3일 간 계속되였다.

대회에는 북반부 각 도 당 단체 책임자 및 당 열성자로 구성된 70 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 구성은 매우 복잡하였다.

지난 시기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굴함 없이 용감하게 투쟁을 계속하여 온 견실한 혁명가들을 비롯하여 세련된 선진적 로동자 출신 당 열성자가 적지 않게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과거에 조선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고질화된 종파 분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 일제 앞에 투항 변절한 《공산주의자》들도 다수 섞이여 있었다.

대표 구성의 이와 같은 복잡성은 대회 사업의 복잡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대회의 목적은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확정하며 당 중앙 지도 기관으로서의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며 당 대회의 소집과 당 강령 규약 초안 작성에 대하여 토의하는 데 있었다.

대회는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당시 조선의 정치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 및 당면 임무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 제시된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은 조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규정된 조선 혁명 발전의 총방향이였으며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당의 정확한 전략 전술이였다.

또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를 선거할 데 대하여 대회에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직 위원회 창설의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특히 이러한 당 중앙 지도 기관을 북조선에 설치하는 것은, 조선에 사회 제도가 다른 두 나라 군대가 진주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량단된 특수한 정치적 조건들을 타산하여 하루 속히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그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해야 할 중대한 혁명 과업이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업의 실행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하게 그리고 또 긴급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일성 동지는 보고에서 가까운 시기에 지체없이 당 대회를 소집하고 그에서 당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며 민주주의적으로 당 중앙 지도부를 선거하여 당 대렬을 정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앞으로 채택할 당 강령 및 규약 초안을 준비할 구체적 방도와 그 초안 작성에서 지침으로 될 기본 체계와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였다.

대회에 제기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대회와 전 당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 놓았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오 기섭, 정 달헌, 리 주하, 주 녕하 기타 종파 분자들은 보고에서 제기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등의 정당한 론거도, 새로운 대책적 의견도 없이 덮대고 항거하여 나섰다.

그들의 가장 집요한 도전의 대상으로 된 것은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에 대한 문제였는바 그러한 조직의 창설을 그들은 《당의 분렬》이라고 비방하면서 종파와 간첩 집단인 《서울 중앙》을 합법적인 당 중앙 지도 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발악하면서 구경에는 대회 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대회에서는 심각한 사상 투쟁이 전개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로선과 당 건설 방침들을 완강히 반대하여 나선 종파 분자들은 공산주의자 핵심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또는 리론적으로 치명상을 받았다.

김 일성 동지는 대회에서의 수차에 걸

치는 발언과 개별 담화를 통하여 반대파들을 극복하고 사태를 수습하며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 짓기 위하여 인내성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정치 리론적으로 완전히 파산 당한 종파 분자들은 더는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자기의 립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조직 위원회 창설을 반대하는 것보다 그 속에 들어 가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그를 통하여 그 조직을 《서울 중앙》의 《종속 기관》으로 또는 《지방 당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중에는 심의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태도를 표명하게 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회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로선이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되였으며 대회에 제기된 주요 문제들에 대한 결정서들이 채택되게 되였다.

다음으로 대회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제의를 접수하고 김 일성 동지와 김 용범, 박 정애 동지 등 17명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조직 위원회 제 1 비서로는 김 용범 동지가 선거되였다.

그러나 대회에서는 야심적인 반당 종파 분자들의 시도가 어느 정도 관철됨으로써 조직 위원회의 구성에 그 주요 인물들이 다수 기여들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는바 그 중 오 기섭은 당 제 2 비서의 자리에 들어 앉게 되였다.

바로 이것은 차후 조직 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징후를 보여 주었다.

대회에서는 전당 대회의 소집과 당 강령 및 규약 초안 작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것으로써 당 창립 대회는 자기의 기본 사명을 완수하였다.

대회의 력사적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대회는 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확립하고 합법적인 당 중앙 지도 기관으로서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에서 통일적이며 건전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였다.

이 때로부터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며 향도자로서 우리 시대의 정치적 수령으로서 조선 인민 앞에 당당히 출현하였다.

이것은 30년대 이래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공산주의자 핵심의 지도하에 꾸준하게 전개되여 온 새 형의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해 놓은 빛나는 혁명 전통, 그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토대로 하여 통일적 당을 창건함으로써 당을 종파 분자들의 파괴적 책동으로부터 구출하였으며 그들에게 심대한 리론적 및 정치적 타격을 가하였다.

조선에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적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 로동 계급과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에 단합된 한성원으로서 당당히 들어 서게 되였다.

* *

당 창립 대회에서 채택된 당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은 인류 최고의 지혜인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을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 모범이다.

우리 당이 오늘처럼 그렇게 위대한 성과를 쟁취할 수 있은 것은 바로 그가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창건 첫날부터 옳바른 맑스—레닌주의 로선을 수립하고 그를 철두철미 견지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에 반대되는 일체의 그릇된 사상들과 승리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각종 종파 분자, 좌우경 기회주의 분자들은 이러저러한 비맑스주의적인 소위 《로선》을 내걸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전개된 정강이나 완성된 로선이 아니라 추악한 종파적 야욕을 비속화된 《맑스주의》적 명제로 둘러 씌운 한갖 《정치적》 허울이였으며 기만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었는바 이것은 조선에서의 종파의 특성이다.

대표적인 것은 박 헌영 간첩 종파 집단의 이른바 《중앙 로선》이였는바 그들이 발표한 소위 《8월 테제》 또는 《9월 테제》들은 그 집단의 계급적 진면모를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그들은 동방에서의 쏘련 군대의 해방자적 역할에 대한 무시와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자 곧 자기들은 앞으로 《미군의 정책을 지지하며, 미국과 친선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또한 박 헌영 간첩 도당은 쏘련에서의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민족 혁명의 특성을 무시하고 조선 혁명은 순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미제의 주구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인민 공화국》을 조작하고 당과 인민에게 그를 《비난하기보다 높이 평가하며》 그를 위하여 《만세》를 부를 것을 강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현실의 요청》이라고 떠벌렸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박 헌영 간첩 집단이 내걸은 소위 《정치 로선》의 본질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인 국내 반동들과 결탁하여 조선에 부르죠아 공화국을 수립하고 사실상으로 우리 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국가로 만들자는 데 있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부르죠아 민주주의자들의 우경 기회주의적 요구였으며 데마고그적 언사로 가장된 투항주의였다.

그는 인민 대중들에게 미제에 대한 환상을 주입시키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정치적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종파 분자들은 《좌경》 기회주의적, 모험주의적 구호도 들고 나왔다.

당시 《장안파》의 《테제》에 의하면 제 2차 세계 대전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계급 투쟁》이며 조선에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기 때문에 조선 로동 계급은 곧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정권을 즉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혼동하면서 주관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조급하게 뛰여 넘으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혁명에서 조선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서는 오직 도시와 농촌의 반(半) 프로레타리아 요소들만 될 수 있으며 각종 소부르죠아 계층은 《호의적 중립》을 취하게 하며 민족 부르죠아들은 《진압》의 주요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장안파》 분자들은 혁명적 민주주의 력량의 광범한 단결과 통일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완전한 리적(利敵)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좌경》적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소아병》적 조급성으로 표현되는 소부르죠아 인테리 사상의 발현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과거 혁명에서 투항 변절한 자기들의 죄과를 엄폐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유해로운 각종 좌우경적 기회주의적 편향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 당의 명확한 정치 로선을 작성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과조(過早)도 안 될 것이며 과만(過晩)도 안 될 것입니다. 좌경도 허용될 수 없고 우경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정치 로선은 조선 혁명에 관한 기본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해방 당시 조선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은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일반적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일련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시기에 또한 조선의 로동 계급이 정치적으로 각성한 그러한 시대에 처한 인민 혁명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선 혁명의 성격을 로동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는 로동자, 농민을 그 주체로 하고 기타 광범한 사회적 계층들이 이에 참가하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으로서 규정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조선 혁명은 종래의 부르조아 혁명과는 구별되는 즉 자체 발전 행정에서 사회주의 혁명 계단에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러므로 조선 혁명의 당면한 기본 임무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바와 같이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조선에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봉건주의 잔재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과 국제 파씨스트 주구들은 가장 큰 장애물이였다.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중요하게 그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기 위한 제반 민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이 민주 개혁은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 건설과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로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우선 일본인 및 친일적인 조선인 반동 지주의 일체 토지를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원칙(그 후 이 원칙은 계급적 력량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일체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철폐하는 원칙에로 발전하였다)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뒤이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일체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일제가 파괴하고 간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며 철도 운수를 회복하여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닦으며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해방 직후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와 봉건 잔재를 소탕하는 것이 선차적 과업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선 토지 개혁부터 시작하였으며 토지 개혁에 뒤이어 곧 산업 국유화와 기타의 민주 개혁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북반부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 과업은 해결되였습니다》(《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상술한 혁명의 기본 임무의 성과적 수행은 모든 혁명에서 주되는 문제인 주권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창립 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주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방향에 따라 당은 장차 우리 나라에는 부르조아 공화국도 아니며 쏘베트 주권 형태와도 구별되는 조선 민족의 완전 자주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정치적 기초로 되는 진정한 인민 정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들을 각 지방에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하루 속히 통일적인 전 조선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국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국제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해방 후 조선 근로 대중들이 발휘한 혁명적 창의를 심오하게 연구 분석한 기초 우에서 내려진 결론이였다.

이 정권은 박 헌영 간첩 도당이 조작하였던 《인민 공화국》과 정반대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인바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로농 독재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였다.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선차적인 문제는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는 문제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전도가 전적으로 《누가 대중을 쟁취하겠는가, 공산당이 령도하는 로동 계급이냐, 자본가 계급이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각 당, 각 파와 련합하여 광대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전술 방침을 채택하였다.

민족 통일 전선——이것은 사회의 각이한 계층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주되는 적이 아닌 가능한 일체의 동맹자를 쟁취하고 주되는 소수의 적을 고립시켜 그를 각개 격파하는 어려운 혁명적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 어려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당이 고수해야 할 기본 원칙들을 명시하였다.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통일 전선의 원칙은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공산당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승인하며 쏘련과의 친선 관계를 지지하는 민족 자본가까지도 최대한으로 광범히 망라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일 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산당은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자기의 독자성을 상실하여서는 안 되며 그는 항상 주동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당 조직을 공고히 하며 광범한 사회 단체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민족 자본가들을 포함한 광범한 계층들과 련합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련합 전선의 핵심으로 되는 로농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민족 자본가들의 동요성과 배신적 추향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며 그를 비판 제약하면서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공산당이 만일 통일 전선 사업에서 좌우경을 범하지 않으려 하거든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일제의 주구들과 결코 통일 전선을 형성하지 말아야 하며 적아를 옳게 식별하고 대중들이 발동되여 그들과 적극 투쟁하도록 군중 공작을 능숙히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이러한 통일 전선 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는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과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중요하게 참작하였다.

이 로선에 의하여 우리 당은 기백만 군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고 진정한 인민 정권을 쟁취하였으며 이미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계속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은 당의 이러한 통일 전선 정책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또 할 수도 없었다.

우경 기회주의적 종파 분자들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통일 전선 형성에서 당이 준수해야 할 제 원칙들을 《극단적 편무성》이라고 시비하면서 친제국주의적 반동 계층들과 련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좌경 기회주의자들도 역시 당의 통일 전선 정책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초기에는 극좌적 구호를 들고 나왔으나 얼마 안 가서 우경 분자들을 앞서 나아 갔다.

해방 후 우리 당 앞에 나선 이상과 같은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며 단결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정치적 과업의 또 하나는 우선 혁명의 령도자인 당 조직 자체를 확대 강화하며 동시에 각 계층 군중을 조직하는 사회 단체들의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첫날부터 당을 조직 강화하는 문제와 아울러 그 당의 령도를 접수하며 그 정책을 솔선 실천하는 당의 외곽 단체로서의 로동 단체, 농민 단체, 청년 단체 기타 각종 사회 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는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 왔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당면

임무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의 견지에서 이러한 사회 단체들은 반드시 민주주의적 강령과 구호를 가지고 광범하게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대중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그는 청년 조직 문제에서 종파 분자들의 《공청 로선》을 반대하면서 공산주의 청년들을 핵심으로 하고 광범한 대중적 기초 우에서 민주주의 청년 동맹을 조직하는 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로선은 민주 건국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지닐 청년 대중의 분렬을 방지하고 그를 우리 당 주위에 집결시키는 사업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러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파 분자들은 이 로선을 계속 반대하면서 기존 공청 단체를 민청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태공하여 나섬으로써 혁명 사업에 막대한 저해를 주었는바 이것은 당의 군중 로선을 파탄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책동이였다.

정치적 방면에서 제기되는 상술한 혁명 과업들은 조선에 조성된 특수한 정치 정세로 말미암아 남북반부에서 동시에 수행될 수는 없었다.

조선이 해방됨과 함께 혁명적 정세와 혁명적 위기는 조성되였다. 그러나 남반부를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 군대가 강점하게 됨으로써 조선 혁명 발전은 간고성과 장기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의 정치 로선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특수성을 심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 있는 북조선에서 제시된 혁명 과업들을 우선적으로 급속히 수행함으로써 북조선을 우리 나라 혁명의 원천지—민주 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이러한 교시로부터 출발하여 대회는 북조선에서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채택하였는바 이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전략적 방침으로서 조선 혁명에 대해서 가지는 그 력사적 의의는 거대하다.

북반부에 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하는 것——이것은 혁명의 전국적 승리의 출발점이며 물질적 담보이다. 그것은 튼튼한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혁명 세력을 극복할 다른 힘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강요 당한 3년 간의 가혹한 조국 해방 전쟁의 결과가 그를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만일 우리 당이 김 일성 동지의 로선에 립각하여 동요 없이 북조선을 철벽같은 혁명적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지 못하였더라면 혁명에서 계속 주도권을 장악하고 확신성 있게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였을 것은 명백하다.

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정치 로선은 이미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가 작성한 조국 광복회의 강령에서 규정되였던 혁명 로선의 해방 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발전이였다.

이 로선은 바로 《군중 속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 가는》 진정한 군중 로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인민들과 같이 살며 인민들의 리익을 자기의 리익으로 알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온갖 정책들을 세우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는 정치 로선을 내세우고 있다》(선집, 제 1권, 1955년 판, 452페지).

* *

인민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확한 당 정치 로선은 이에 복무하는 정확한 조직 로선을 요구한다.

당 조직 로선——이것은 당 건설의 기본 방향과 원칙으로서 소여의 당의 계급적 본질을 반영한다.

비볼쉐위크적, 비프로레타리아트적 정당들에게는 그들이 진실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조직 로선도 기회주의적이다.

혁명 대중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지도를 보장할 수 없었던 20년대 조선 공산당의 비극적인 운명이 이를 말하여 주고 있는바 그 당이 불과 몇 해를 존속하지 못하고 해산된 것은 바로 그가 볼쉐위크적인 조직 로선을 관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립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해방 후 《서울 중앙》의 박 헌영 간첩 도당들과《장안파》 분자들은 이러한 력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다시 당을 소부르죠아 인테리 집단으로, 민족과 혁명의 변절자들의 피난처로, 배타주의적인 협소한 종파 소굴로, 인민과 유리된 쎅트 단체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부르죠아지의 리익의 대변자들이였으며 혁명의 변절자, 투항 분자, 제국주의 국가의 고용 간첩들이였으며 배타적인 종파주의—쎅트주의자들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이 진실한 맑스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 탈을 쓴 가짜 공산주의자들이였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지난 시기의 경험과 당내의 구체적 정세를 분석 총화한 기초 우에서 정확한 혁명적 당 조직 로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는 레닌적 당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을 지침으로 하였다.

레닌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강한 조직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직은 반드시 《정치 투쟁의 정력과 확고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혁명가의 조직》이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조직 로선의 본질은 우리 당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침으로 통일 단결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강철같은 규률로 세워진 로동자, 빈농, 혁명적 인테리 속에 튼튼히 뿌리 박은 로동 계급의 대중적 정당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이것은 이러한 당이 없이는 간고하고 복잡하고 장구한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며 조직할 수 없다는 진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당을 대중적 정당으로, 로동 계급의 전위 부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당의 구성 성분을 옳게 규정하며 그를 계통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 초기에 종파 분자들의 관문주의적, 배타주의적 책동에 의하여 각급 지방 조직들에서 소부르죠아적 요소가 당내에서 우세를 차지하였던 형편을 특히 우려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 선진적인 인테리들을 위하여 당 문을 대담하게 열고 그들 속에서 정수 분자들을 광범하게 인입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이 교시를 접수하고 대회는 진정하게 혁명을 위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호하며 당의 규률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로동자, 빈농 및 청년, 근로 인테리들에게 당 문을 열며, 대담하게 당에 흡수함으로써 당을 대중성 있는 유력한 혁명적 무산 계급 정당으로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대회는 오직 로농 대중의 기초 우에 건설된 정당만이 광범한 혁명 군중을 령도하여 당면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정신에서 대회는 각급 당 단체들에게 공장, 광산, 기업소, 농촌들에 자기의 세포 조직을 확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대중적 정당의 조직 로선은 혁명 정세 발전의 매 시기마다, 특히 당 력량의 기본 핵심의 공고화에 따라 빛나는 력사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1946년 8월 우리 당은 신민당과 합당하여 조선 로동당으로

발족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대중적 정당으로부터 근로 대중의 대중적 정당에로 전환되였는바 이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대중적 정당 조직 로선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오늘 우리 당이 백만 이상의 근로 대중의 정수 분자를 자기 대렬에 망라한 강유력한 당으로 된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찬란한 승리이며 조선 로동 계급의 커다란 승리이다.

물론 해방 직후부터 조선의 혁명 정세와 과업은 오늘의 우리 당과 같은 보다 광범한 계급적 토대를 가진 대중적 정당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당의 통일성과 순결성을 위하여 극히 위험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불가능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초기에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핵심이 아직 많지 못한 조건하에서 당 대렬에 지나치게 광범한 대중을 망라한다면 그를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소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력량 관계를 면밀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대중적 정당 조직에 대한 정확한 전술적 지도를 주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 채택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당은 광범한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로동 계급의 성분으로 부단히 당 조직을 확대하며 그들 속에서 계통적으로 당 간부들을 육성함으로써 자기의 튼튼한 기본 핵심을 꾸려 놓으며 이에 기초하여 근로 농민, 근로 인테리들 중 선진 분자들을 당내에 광범히 망라하여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 조선에서 가장 강대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바로 여기에서도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당을 대중적 정당에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특히 경계할 문제는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것이였다.

프로레타리아 당의 힘은 그 성원의 량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그의 질과 조직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레닌은 《모든 당원이 당에 대하여 책임지고 당이 모든 당원에 대하여 책임진다》(전집, 조선문 판, 제 6권 제 2분책, 380페지)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의 순결성을 보장할 데 대한 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로농 대중 속에서 정수 분자를 광범히 당에 흡수하되 이색 분자의 혼입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해방 초기 일부 지방 조직들에는 각종 이색 분자, 변절자 혹은 일제의 주구까지 잠입하여 당 대렬을 문란케 하며 당과 대중을 리간시키는 책동을 감행하고 있은 사실에 비추어 이색 분자에 대한 경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당 대렬에서 숙청하는 것은 전 당적으로 절실한 문제였다.

이로부터 대회는 당을 로농 대중을 토대로 하여 대담하게 장성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당내에 잠입한 친일 분자, 암해 분자, 각종 이색 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하며 그런 분자들이 더는 당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함으로써 당의 순결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 대렬을 이색 분자의 잠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당 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투쟁은 교활한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투쟁하는 조건하에서 건립되여 발전하는 청소한 우리 당을 위하여 각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바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을 비롯한 각종 이색 분자들을 적발 제거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조직 로선을 천명하면서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당 대렬의 강한 통일, 강령과 전술 및 조직 문제에 대한 견해의 통일은 레닌적 당 내부 생활의 중요한 원칙이며 그의 성과적 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더우기 당 력사가 청소하고 강한 당 생활 경험이 부족하며 엄격한 당 규률과 대중적 통제가 확립되지 못한 초창기에 있는 당을 위하여서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며 당내에 불건전한 사상을 부식하려는 온갖 시도들과의 부단한 투쟁이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 력사의 교훈과 당내 형편을 심오하게 분석하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종파 분자, 좌경 기회주의 분자, 량면주의 분자들과 원칙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지적하였다.

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말아 먹은 력사적 죄악을 범한 종파 분자들과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당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자기들의 과거의 엄중한 죄과를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악질적인 종파적 책동을 감행하는 자들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자기의 종파 근성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당내에서 충실히 사업하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당적 립장에 서도록 지도 방조할 것이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당의 반종파 투쟁의 기본 방침이였으며 종파 분자들에 대한 원칙적이며 인내성 있는 태도였다.

그러나 1956년 8월에 폭로 규탄된 최 창익, 박 창옥을 비롯한 반당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너그러운 포섭과 인내성 있는 태도를 거부하고 배신적으로 당과 그의 중앙 위원회와 인민을 반대하여 반혁명적 음모를 획책하였다. 이 자들에 대한 백만 당원의 통일 단결된 힘에 의한 응당한 타격과 당의 조치는 참으로 정당하였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확증되고 있다.

대회는 또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좌우경 기회주의도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위하여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해방 후 각종 기회주의적 구호를 들고 나선 자들은 바로 종파 분자들이였는바 이들과는 당의 정치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량초 전선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신중성 없이 이러저러한 《모자》를 함부로 씌우는 행동이 없도록 할 것을 경고하였다.

동시에 대회는 양봉 음위하며 동지 간에 리간을 조성하는 량면주의 분자들도 극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도 엄격하게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그의 창건 첫날부터 전체 당원들을 당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상으로 교양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제국주의자들도, 어떠한 수정주의자들도 또한 어떠한 반당 종파 분자들도 당을 자기들의 롱락물로 만들 수는 없었다.

특히 1956년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수정주의자들이 《반쏘 반공》 국제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이에 발맞추어 리 승만 도당이 《북진》 소동을 요란스럽게 떠벌리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당내에서 반혁명 반당 종파 분자들이 악랄하게 도전하여 나섰음에도 우리 당이 추호의 동요도 없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위대한 진군을 향도하였다는 력사적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전 당이 엄격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규률의 토대 우에 건립되여야만 보장될 수 있다.

레닌의 교시에 의하면 당성과 당 규률을 부인하는 것은 적들을 위하여 로동 계급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지도에의 복종을 거절하는 것——이것은 당내에 남아 있을 것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며 당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하다.

김 일성 동지는, 종파는 당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교시하면서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되지 못하였으며 당내에 아직 과거의 종파 사상이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이러한 당 규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 당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이러한 당 규률은 상하를 불문하고 모든 당원들이 동일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대회는 당 조직을 강화하며 당의 로선을 관철시키는 결정적인 담보는 당 규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파괴하는 자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자라고 엄격하게 선언하였다. 이것은 레닌적 당 조직 로선의 제 1차적인 중요한 사상이다.

당내에 있어서의 규률은 그가 강제적이거나 기계적이 아니라 자각적이여야 진실로 강한 것이다. 당의 규률은 행동의 통일과 토의와 비판의 자유가 결합되여야 한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레닌적 당 생활 규범에 립각하여 우리 당의 규률은 자각적인 것이 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백방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회는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당의 지도 리론인 맑스—레닌주의로 전 당을 무장시키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대회는 매개 당원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하며 리론을 실천과 결부시키는 방면에서 우리 당은 아직 청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 당이 배우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대회는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당의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조가 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교조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조선의 구체적인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긴다.

그의 특성은 책 속에 있는 몇몇 글귀를 암송하는 데 그치고 현실을 그와 결부시킬 줄 모르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상술한 당 조직 로선은 레닌적 당 조직 원칙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당원 대중과 인민 대중을 당 단체와 긴밀히 련결시키는 정확한 조직 로선이다.

이러한 로선의 확립은 우리의 당 건설을 정치적 요구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당내에서 유일한 사상 체계의 지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당의 행동 통일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 *

오늘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북반부에서 찬란한 사회주의의 락원을 승리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 핵심과 그의 정확하고 현명한 령도——바로 이것이 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뇌수이며 힘이다.

오직 이 뇌수와 힘만이, 해방 후 나라의 한쪽 땅을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에 의하여 강점 당하고 국내 반동의 테로와 폭행과 악선동이 횡행하며 그의 주구배들과 종파 분자, 기회주의 분자들의 악랄한 분렬 책동이 혹심한 환경 속에서 또한 나라의 보잘것 없는 경제마저 산산이 무너지고 파괴된 그런 조건하에서 사물을 옳게 판단하여 중심을 틀어 쥐고 선후차를 갈라 옳은 로선과 전략 전술을 확립함으로써 조선 인민을 모든 재난과 곤난 속에서 구원하여 밝은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인민은 이 뇌수와 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그를 생명으로써 보위한다.

우리 당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은 그가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유일하게 정당한 과학인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작성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체현하고 있는 데 그 담보가 있다.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것이 전 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과 피와 살이 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혁시킬 수 있는 물질적 힘으로 전변된다.

조선 인민의 천리마 운동은 바로 이 힘의 체현이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공산주의자 핵심이 이룩해 놓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것은 우리 당의 근원이다.

바로 이 뿌리를 더욱 가꾸어 자래우고 영구히 보존할 때 우리 당은 확고 부동하다.

이 위대하고 견고한 뇌수와 힘과 뿌리를 가진 당은 필승 불패의 당이며 그 로선과 정책은 항상 승리한다.

중심 고리의 포착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의 기본 요구

김 후 선

최근에 김 일성 동지는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이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할 줄 아는 령도 예술을 소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중심 고리를 포착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일'군들이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과학적 령도 예술을 체득하며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실천적 및 리론적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중심 고리에 관한 문제가 특별하게 강조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그를 가일층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과 직접 관련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가 비상히 높은 현 조건하에서 우리 앞에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동시적, 계기적으로 더 많이 제기된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쁘게 다른 새로운 문제가 련이어 나서게 되며, 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다른 문제의 해결에로 제때에 기동성 있게 넘어 가야 한다. 제기되는 허다한 문제들을 지체 없이 처리해 냄으로써만 우리는 전진 속도를 계속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발전 단계는 일'군들에게 고도의 계획성과 조직성을 요구한다. 수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호상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경중과 선후차에 따라 모두 다 제때에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중심에 련결되여 있는만큼 한 단위에서의 사업의 성과 여하는 다른 단위들의 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 범위에서나 매개 부문 또는 단위들에서를 막론하고 사업의 매개 부분은 반드시 전체의 요구에 수응하여 민활하게 처리되여야 한다.

또한 오늘 당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근로 대중의 의식성과 창조적 적극성은 비상히 높다. 사회주의는 근로 대중 자신의 자각적 사업이며 그들의 목적 의식적,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일'군들에 의하여 조직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지도 일'군들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일 것을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반드시 복잡하고 긴장된 환경 속에서 사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하며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당 정책의 본질적 요구를 자기 사업에서 정확히 관철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의 준비 정도와 지도 수준은 제기되는 과업들과 객관적 요구의 수준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에서 왕왕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당 정책 관철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일'군들이 과학적 령도 방법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력량을 분산시키며 랑비

하게 되는 거기에서 가장 엄중하게 표현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 줄 아는 령도 예술을 소유하는 문제는 사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심 문제로 되며 우리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중심 고리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중심 고리——이것은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당의 전략 전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의 하나로 된다.

해당 시기 해당 령역에서의 관건적 과업은 사업의 전체적 련관에서 중심 고리로 된다.

혁명의 매 단계, 매 모멘트마다 우리 앞에는 일련의 과업들이 제기된다. 그 중에는 어떤 하나의 과업 해결 여하에 따라 당면한 또는 앞으로의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 해결 여부가 좌우되는 그러한 과업이 있다. 이 과업이 관건적 과업이며 중심 고리이다. 혁명 력량이 이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기타의 모든 과업들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레닌은 《정치 생활 전체가 무한히 련결된 고리로 되여 있는 무한한 련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치가의 전 기교는 손에서 떨어질 념려가 가장 적으며 소여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련쇄 전체를 가지게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장하는 바로 그와 같은 한 개의 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꽉 틀어 쥐는 데 있는 것이다》 (전집, 제 5권 2분책, 조선문판, 364페지) 라고 말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바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관건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다른 부문들을 가장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축성할 수 있었다.

사업에서의 중심 고리와 기타의 고리 그리고 그들 간의 호상 관계는 일'군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발전의 합법칙성과 조성된 구체적 조건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중심 고리와 기타 고리와의 관계 및 그 련결 방식 등등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일목료연한 것이 아니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사건의 력사적 련쇄에 있어서의 고리의 순서와 그 형태, 그 련결 방식과 그 호상 구별은 야장이 만든 보통 철쇄와 같이 그와 같이 단순하거나 그와 같이 무미한 것은 아니다》(전집, 제 27권, 조선문 판, 341페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 고리를 규정하자면 객관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여의 력사적 환경의 모든 특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며 사회 생활에서의 사건들과 현상들을 그 호상 련관과 호상 작용 속에서 고찰하여 본질적이고 주되는 련관 또는 관계들을 식별하여야 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들은 호상 련관, 호상 의존, 호상 제약하면서 운동하는 전일체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사물과 현상들 간에 맺어진 매개의 구체적인 련계는 전반적으로 통일된 전일체 속에서 련계의 한 부분, 한 고리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개별적 련계——이것을 련계의 고리라고 한다. 따라서 객관적 세계는 무한히 많은 련계의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집합체가 아니다. 무한히 많은 고리들은 합법칙적으로 호상 련관된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고리들 간에 있어서의 호상 련관과 작용은 다양하며 사물과 현상들의 호상 련관의 체계에서 매 시기, 매 단계에 있어서 그의 위치와 역할은 동일하지 않다. 때문에 그 고리들은 그것들이 처해 있는 위치와 역할 및 관계에 따라서 서로 구별해야 한다. 어떤 고리들은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즉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고리들은 비본질적이며 비기본적인, 따라서 제 2차적인 역할을 노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모든 고리들의 운동 발전에 결정적인 혹은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련쇄 전체의 운명과 본질적으로 련관된 그러한 고리, 결정적이며 주되는 역할을 노는 고리——이것을 중심 고리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심 고리가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중심 고리에 기타의 고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물과 현상의 발전을 가장 많이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을 해결함에 따라서 그에 의존하고 있는 기타의 고리들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혁명 사업, 사회 현상에서 허다하게 발견된다. 례컨대 기계 공업은 제철 공업에 의존하며 제철 공업은 채광, 석탄 공업 및 전기 공업과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또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과 기계가 다량으로 생산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고리 즉 중심 고리는 《철과 기계》이다. 그 밖에 다른 부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또한 매개 소여의 력사적 모멘트에 있어서 사회 발전 과정의 제 모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 모순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며 이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주되는 방도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들은 모순된 대립물의 통일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순된 대립물의 투쟁으로 인하여 운동 발전한다. 사회도 그러하다. 혁명은, 사회에 존재하며 발생하는 모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변혁하며 발전시킨다. 당과 혁명 앞에 제기되는 허다한 과업들은 바로 우리 나라에 존재하며 발생하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모순들은 호상 련관, 호상 제약하고 있는바 소여 시기, 소여 령역에서 호상 련관된 모순들 중에는 주도적 역할을 노는 모순 즉 주요 모순이 있다. 그런즉 일련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 과업들 중 주요 모순의 해결을 위한 과업은 곧 관건적 과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심 고리는 바로 주요 모순 해결을 위한 과업인 것이다. 례하면 오늘 《모든 것이 철에 걸려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철의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이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모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철 증산은 현 시기에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공업 분야에서의 중심 고리로 되는 것이다.

중심 고리는 매 시기, 매 단계에 있어서 한 나라의 혁명의 범위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 작게는 한 공장, 한 직장 사업에서도 존재하며 크게는 세계 혁명의 령역에서도 존재한다. 례하면 제 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현 시기에 있어서 쏘련 인민을 선두로 한 전 세계 진보적 인류 앞에 나선 관건적 과업——중심 고리는 평화 옹호 투쟁이다. 이것은 현 시기에 진보적 인류가 세계 무대에서 해결하여야 할 주요 모순——세계 인민들의 근본적 리해와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새 전쟁 도발 정책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심 고리는 소여 시기, 소여 령역에서의 주되는 모순과 기타 객관적, 구체적 정세와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만 찾아낼 수 있다.

중심 고리를 찾은 후에는 그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혁명 과업 수행에서 중심 고리를 찾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사업의 제 1보에 불과하다. 중심 고리를 틀어 잡는다는 문제는 그 자체가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천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된다. 그런데 사회의 혁명적 개조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

천적 활동을 통해서만 수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고리——관건적 과업을 규정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의 **실천적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업의 실천적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조직 사업이다. 조직 사업은 과업 해결 전반, 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조건이다.

조직 사업에 있어서 이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문제이다. 전쟁에 있어서도 적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을 결정적인 곳, 결정적인 모멘트에 집중하는 법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모든 투쟁에 있어서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김 일성,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인간 생활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모든 령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을 위하여 우리 앞에 제기되는 과업들은 방대하며 무수한바 이 과업들에 비하여 우리의 력량은 상대적으로 언제나 제한되여 있다. 그 많은 과업들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업과 대비하여 력량을 타산한다면 반드시 사업에서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한 날에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물론 좋기는 하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리상과 현실을 구별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옳게 타산하여** 우리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개조하여**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리상을 실현할 수 없다》(동상서, 방점은 인용자의 것).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이를 선차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요구는 중심 고리의 본질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업 전체를 가장 성과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의 해결이 다른 모든 것의 해결을 위한 전제로 되며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중심 고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어진 제한된 력량을 동시에 너무 많은 대상들에 분산시키거나 대상의 성질과 중요성에 따라 선후차를 정확히 가리고 선차적 과업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줄 모른다면 이는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자면 거기에 량적 질적으로 우세한 력량을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기타의 고리들에서의 사업이 또한 중심 고리의 해결에 복종되고 집중되도록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타의 고리들을 도외시하거나 과소 평가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심 고리의 해결은 기타의 고리들의 해결을 규정하며 가장 많이 제약한다. 그러나 기타의 고리들의 해결도 중심 고리의 해결에 많든 적든간에 영향을 주며 그 해결을 보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 일부 농촌 부문 일'군들은 농업에서 알곡 문제가 중심 고리라 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거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이에 대한 당 결정 지시들을 형식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중심 고리와 기타의 고리들에 대한 력량 배치 문제는 선후차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중심 고리는 언제나 선차적인 문제로 될 것이며 기타의 고리들에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성질 여하에 따라 선후차가 결정되여야 할 것이다.

중심 고리의 포착, 력량 관계의 정확한 타산, 중심 고리에의 력량 집중——이것은 사업에서의 성과의 담보이다.

한 중심 고리를 해결하면 즉시 다음 중심 고리 해결에로 넘어 가야 한다

중심 고리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들은 부단히 운동하는 것만큼 중심 고리와 기타의 고리 간의 변증법적 호상

관계도 부단히 변화한다. 하나의 주요 모순이 해결되면 다른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나서며 이에 따라 중심 고리도 달라진다.

련쇄 전체에서의 중심 고리의 결정적 역할은 다만 그것의 해결이 다른 고리들의 해결을 촉진하며 규정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심 고리의 결정적 역할은 그것이 해결됨에 따라 기타의 고리들이 쉽게 해결되며 하나의 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며 새로운 중심 고리로 넘어 갈 수 있게 하는 거기에도 있다. 때문에 하나의 중심 고리의 해결 과정은 다음의 새로운 중심 고리에로 넘어 가기 위한 전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된다.

례하면 전후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중심 고리로서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면에 제기되였다면 그것이 해결된 다음 단계에서는 그의 **기초 우에서** 기술적 개조가 새로운 중심 과업으로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런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서도 지난 시기에는 수리화가 중심 고리였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결된 오늘에 와서는 기계화의 촉진이 중심 고리로 제기되고 있다.

모순된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의 영원하고 심원한 원천이다.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중심 고리를 제때에 포착하는 것은 매개 모멘트에서의 주요 모순의 해결을 가장 신속하게 하며 혁명 발전, 사회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방도로 된다. 이것은 부단 혁명의 요구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요 모순과 중심 고리를 적시에 포착하고 그 해결에로 전체 혁명 력량을 조직 동원함으로써 혁명 승리의 가장 가까운 길로 우리 인민을 인도하는 과학적 령도 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이후 항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당시 우리 혁명에서의 주요 모순이였던 일제와 우리 인민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고리를 항일 무장 투쟁에서 찾았는바 이것은 유일하고 정당한 과학적 로선이였다.

해방 직후 조선 인민 앞에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나라를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건설하여야 할 혁명 임무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조국이 분렬되였고 남조선에 극악한 반동 통치가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 고리를,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찾았다.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의 수행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적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사업에서도 선차적 과업으로서 토지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일련의 민주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이 해결된 다음에 당은 즉시 사회주의 혁명 과업 수행의 단계에로 넘어 갔다.

우리 당은, 전후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짧은 시일 내에 개선하는 중심 고리로서, 원래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토대가 있던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복구하며 발전시키는 로선을 수립하였다. 특히 최근 시기에 있어서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고리로서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실, 기술 혁명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2모작의 도입으로 사료 기지를 축성할 데 대한 과업 등, 당면한 주요 문제와 중심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련이어 제시하고 전체 인민의 투쟁을 이에 집중시켰으며 그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궐기한 전체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은 바로 오늘날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보는 바와 같이 중심 고리를 정확히 틀어 잡

고 그에 력량을 집중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모든 사업에서 키를 잡아야 할 당 단체와 그의 지도 일'군들은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일부 당 단체들에서와 같이 주관주의에 빠져 차요적 고리들에 력량을 분산시키는 현상들을 제때에 극복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관건적 과업들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중심 고리를 보지 못하고 주관주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주요하게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지 않고 구체적 현실로부터 유리되여 있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군중은 직접적인 생산자다. 군중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수다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자로서 현실 속에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만큼 그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군중의 소감, 군중의 의견은 현실의 구체적 조건들과 그 요구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지도 일'군들은 반드시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산만하고 단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여 체계적인 의견으로 발전시키며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일'군들이 소유하여야 할 공산주의적 품성이며 사업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며 현실에 파고 들어 가는 데는 우선 당 정책의 본질적 내용과 당 중앙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 정책과 당의 요구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비록 군중 속에 들어 가며 현실에 접근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중요하며 중심 고리인가를 판단할 확고한 기준을 가질 수 없으며 대담하고 확신성 있게 결심을 채택하고 사업을 조직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주관주의 또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당 정책에 대한 본질적 파악 및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이것은 일'군들이 실천적으로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변증법적으로 운동하며 발전한다. 당 정책도 오직 이 법칙에 의거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의 법칙들에 대한 일'군들의 리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으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서 본질적인 것, 주요한 것들을 찾아내며 사태 발전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능숙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때문에 변증법의 체득은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예술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할 줄 아는 과학적인 령도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는 위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하자

김 초 석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며 우리 나라의 광범한 혁명 력량을 조직적으로 단합시키는 핵심이며 승리의 조직자이다. 조선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을 강화한다는 것, 각급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우리 혁명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 관건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는 인민 경제 전 령역에 걸쳐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로농 동맹에 기초한 인민 대중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 발전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각계 각층 인민들의 인심은 우리에게로 돌아 섰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소수 리 승만 도당을 제외한 량심 있는 사람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여 나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은 도래하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맞이하며 그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화하며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 나선 혁명 과업이 크고 웅장하면 할수록, 혁명적 변혁이 심각하면 할수록 인민 대중을 더욱더 성과 있게 투쟁에 궐기시켜야 하는바 그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의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의 창건 초기에 당내에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핵심이 많지 못한 조건하에서 로동 계급의 성분으로 당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 속에서 계통적으로 당 간부를 육성함으로써 당의 핵심 진지를 공고화하였으며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당내에 강철 같은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에 노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당은 우리 당을 파괴하려는 국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 당내에 잠입한 불순 이색 분자, 종파 분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였던 종파의 잔당들을 폭로 분쇄함으로써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전 당은 자기의 세련된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같이 결속되였으며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라도 능히 승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

였다》(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결정서에서). 그러나 당을 공고화할 데 대한 요구가 이에 그칠 수는 없다.

오늘 우리 당내에는 종파는 없다 할지라도 그의 여독은 남아 있으며 더우기 지방주의, 가족주의 경향들이 일부 당 단체들에 지속되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며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일부 도, 시, 군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발로된 바와 같이 지도적 지위에 잠입하였던 개별적 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당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 지시들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며 당 생활 규범과 당 규약상 원칙에 위반되는 제 현상들이 제때에 폭로 규탄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일부 당원들이 그에 휩쓸려 들어 가는 제 현상들이 그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에 있어서 당을 공고화하는 중심 문제는 각급 당 단체들을 내부로부터 튼튼히 꾸림으로써 전 당과 전체 당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되여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조금만치의 동요도 없이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그의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군 당 위원회의 **첫째가는 사업은** 도 당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간부들을 료해하고 당 핵심을 육성하고 **당 단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첫째가는 당 사업이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백 가지 사업이 다 잘 된다. **사업의 기본 고리는 여기에 있다**》(《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방점은 필자의 것).

* *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린다는 것은 당의 참모부인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 당이 한사람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도록 당의 조직 사상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각급 당 지도 기관과 초급 당 단체들을 강화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무장시키며 인민 경제의 모든 초소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모든 당 조직은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는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튼튼히 확립하는 것은 당의 조직 사상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당은 지도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당의 모든 사업을 한 가지 목적에로 복종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당원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유감없이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라는 것은 광범한 당원 대중의 의견을 집결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당 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수립된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그러므로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 당의 참모부이며 심장이며 뇌수인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며 그를 목숨으로 관철하려는 혁명적 원칙성에 항상 튼튼히 서 있어야 하며 또 그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가장 첫째가는 기본 사명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본적이며 주되는 요구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이 다 우리 당의 이러한 일관된 요구를 원만히 관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당원 대중의 일관된 념원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 기관에 잠입하였던 몇몇 불견실한 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당 정책을 적지 않게 외곡집행하였으며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원산시 당 위원회와 문천군 당 위원회의 교훈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그 지도 기관이 당성이 강한 우수한 핵심 당원들로써 강화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당 단체의 지도 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과 생산 단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령역에 걸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집행하는 핵심적 참모부이다. 따라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이 당성이 강한 우수한 핵심 당원들로써 튼튼히 꾸려졌을 때는** 어떤 개별적 일'군의 불충실성이나 착오로 인하여 당 단체의 활동 자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당적 원칙성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을 당성이 강한 우수한 핵심 당원들로써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일련의 《강조》나 《호소》만으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부 당 단체들이 지속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간부 사업에서의 주관적인 환상적 태도를 근절하여야** 한다.

환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부르죠아 사상 관점이며 그의 사고 방법이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당 지도 기관에 종파 분자, 불견실한 자, 우연 분자들이 잠입할 가능성을 준다.

모든 사물의 운동 과정이 그러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 의식도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실제적 경험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나 온갖 착취적 근원과 일체의 낡은 것들이 종국적으로 청산되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와서는 동요하면서 비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일부 나타났으며, 반종파 투쟁,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에는 잘 동원되지 않고 눈치와 기회만을 엿보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일시적인 난관 앞에서 굴복하거나 과감한 전진과 혁신 앞에서 피동적이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함이 없이 친척 친우 관계, 동창 관계, 동향 관계, 과거에 혁명을 같이 하였다는 제 사정 등에 구애되여 주관적 환상적으로 간부를 등용 배치한다면 기필코 우리의 혁명 사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강원도 당 단체의 쓰라린 교훈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간부 사업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형성된 막연한 환상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 당 생활 정형에 근거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각급 당 지도 기관에 인입해야 하는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당 간부는 첫째로 혁명에 대하여 충실하고 어떤 조건하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동요 없이 일편단심으로 당을 지지하고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금만 흔들어도 적에게 항복하며 이 바람에 넘어 가고 저 바람에 자빠지는 사람은 요구되지 않는다. 진실로 혁명에 충실한 간부를 골라서 등용해야 한다》(《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각급 당 단체들은 간부의 선발 배치에서 이러한 당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과거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우수한 일'군들과 로동에서 단련된 핵심 당원들, 전쟁 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용감히 싸운 당성이 강한 일'군들로써 당 지도 기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래야만 철저하게 당 정책을 고수하며 어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적 원칙을 견결히 옹호하며 종파 분자, 불순 이색 분자들이 어디서나 배겨낼 수 없도록 투쟁하는 강철같은 정치적 조직체로 당 지도 기관들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당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지도 기관들의 활동을 적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성이 강한 당원들로써 지도 기관을 꾸렸다 하여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매개 위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려

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뿐만 아니라 지도 기관 내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지도에서의 집체성 원칙은 우리 당 지도의 최고 원칙이다. 이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여야만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에서 발로된 바와 같이 어떤 개별적 일'군의 주관적 및 편견적 의도에 의하여 당 정책이 외곡되거나 그의 관철이 저해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지난 시기 평북도 정주군, 구성군 당 위원회들에서와 같이 아직도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에서는 전원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에서는 설사 전원 회의를 소집한다 하여도 회의에서 책임적 일'군들이 독판을 침으로써 사실상 지도에서의 집체성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다.

심지어 평북도 천마군 당 위원회의 경우에는 전원 회의에서 위원들과 핵심 당원들이 산간 지대에 적응하게 축산업을 위주로 하면서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의견을 부당한 것으로 일축해 버리고 당 정책과는 반대되게 알곡을 위주로 하는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리하여 천마군 당 위원회는 당시 위원장으로 사업하던 량 순익의 개인 독단에 의하여 해마다 랭해로 말미암아 거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논 면적 확장에 농민들을 동원함으로써 산간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당 단체 지도 기관 내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위반하면서 개인의 주관과 편견에 의하여 당 정책을 그릇 인식하고 집행한 사실은 비단 이상 당 단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은(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위원들과 핵심 당원들, 나아가서는 광범한 군중들과 허심하게 상론하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 단체 책임 일'군의 주관에 의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적지 않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 왕왕 당 정책을 외곡 집행함으로써 당과 혁명 사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유를 미연에 방지하며 당 단체의 활동 자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 단체의 참모부인 지도 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당 사업 지도에서 집체적 협의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이 각급 당 단체는 어떤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투적 조직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이 당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지 못하였으며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못한 것은 또한 우리 당의 기층 조직인 일부 초급 당 단체들이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성과 계급적 각오 정도가 높지 못하였던 사정과도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왜냐 하면 우리의 매개 당원들은 례외 없이 초급 당 단체에 소속되여 의무적으로 당 조직 생활에 참가하고 있으며 초급 당 단체들은 광범한 대중과의 일상적인 련계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든 초소들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가 건전하고 당원들의 당성과 계급적 각오 정도가 높다면 어떠한 비원칙적인 현상이라도 배겨낼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당성과 계급적 각오 정도를 급속히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당원들의 당 생활이란 단순히 당 회의와 당 학습회에 참가하며 당비나 바치는 데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 생활이란 아주 풍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바 한마디로 말하면 매개 당원들이 당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당원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 규약은 당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기초이다》(김 일성). 당 규약은 매개 당원들이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내의 사상적 및 조직적 통일을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며 당의 리익을 해치는 모든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원의 의무로서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매개 초급 당 단체들이 당 생활과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당 규약상 원칙과 당원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정신으로 당원들을 철저하게 교양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 정책 관철에서 더 높은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현 시기 중요한 것은 당내에서 **종파의 여독과 지방주의, 가족주의 경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실제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방주의, 가족주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곳에서는 례외 없이 당 정책이 철저하게 관철되지 못하며 당내의 사상 의지의 통일이 보장되지 못한다. 이것은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종파주의이며 당의 중앙 집권제적 규률을 약화시키는 독소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종파주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온상으로 하여 뿌리를 뻗치며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를 낳는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종파주의와 함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러한 비조직적인 경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당원들을 일상적으로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발현되는 **일체의 부르죠아 사상 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혁명이 고조되고 당의 중앙 집권제적 규률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불견실한 자들 가운데서는 일시적인 곤난 앞에서 동요하며 배후에서 당 정책을 비난하며 당 및 국가 사업 지도에서 보수성과 소극성을 발로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일삼으면서 당 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형식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두가 부르죠아 사상의 표현이다.

객관 세계의 발전 법칙이 확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일체의 낡은 것, 부패한 것, 퇴폐적인 것들은 력사 무대에서 순순히 물러 가는 법이 없다. 이런 낡은 사회의 찌꺼기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오늘에 이르러서까지도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인내성 있고 꾸준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서만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각급 당 단체와 당원들은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라는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체의 낡은 사상 잔재들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더우기 승리에 도취하고 안일성에 빠져 **부화 방탕하는 경향들에 대하여 예리한 화살을 집중하**여야 한다.

부화 방탕——이것은 부르죠아 사상의 표현이며 우리의 뇌수를 좀먹는다. 이것은 우리를 타락시키며 적의 편으로 이끌어 간다.

이미 폭로된 바와 같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례외 없이 부화 방탕한 자들이였으며 이 자들은 당원들의 당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당 단체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부화 방탕을 조장시켰다.

그러므로 현 시기 부화 방탕을 반대하는 투쟁은 당 단체를 건전하게 꾸리며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투쟁과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

각급 당 단체는 당원들의 당적 및 계급적 각성을 고도로 제고시킴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비조직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사상 경향과 함께 개인 리기주의, 부

로죠아 향락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 및 습성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부화 방탕한 현상에 대하여 단지 때리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에 끌려 들어 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 핵심의 지도하에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15 여 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도 등'짐에 하모니카를 넣고 다니고 퉁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정이 심해서 보초를 먼곳에 배치하고 그를 더욱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도 문화 사업을 조직하군 하였다. 산에서도, 무인지경에서도 문화 사업을 조직하여 배고픈 것도 잊어 버리고 발아픈 것도 잊어 버리고 용기를 내군 하였다.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일상적인 문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모든 유원지와 기타 각처에 체육 문화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수영 경기를 비롯한 각종 체육 써클과 소설 랑독회 및 기타 각종 형태의 오락을 조직하며 여기에 많은 근로자들을 인입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서 각 도 당과 시, 군 당 기관 일'군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 속에 남아 있는 과거의 낡은 부르죠아적 독소와 온갖 낡은 생활 관습들을 일소하고 그들을 문명한 공산주의적 생활에로 인도하여야 한다.

당내에서 일체 비조직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경향과 낡은 사상 잔재들을 일소하고 당을 강철의 조직체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중앙 집권제는 당내의 광범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오직 당내 민주주의 기초 우에서만이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으며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각적인 당 규률을 강화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강원도 당 단체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심 당원들을 당 지도 기관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당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 당 사업을 개선하는 중요 고리라는 것을 여러 모임들에서 거듭 강조하시였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우리 당 발전의 강력한 무기로서 이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당적 원칙성을 고수하도록 당원들을 교양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며 새 것, 진보적인 것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주고 낡은 것, 침체한 것의 조락을 빠르게 한다.

그러므로 당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는 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며 당적 원칙에 위반되는 일체의 그릇된 현상들을 불살라 버리고 당의 중앙 집권제적 규률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으로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에서 발로된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란폭하게 억제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평북도 정주군 인민 위원회의 어떤 책임 일'군은 초급 당 단체 총회에서 당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고 추궁하여 그들의 창발적 열성을 마비시키며 심지어는 당 회의에서 부장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는 《철칙》까지 세워 놓았다. 또한 락원 기계 공장의 어떤 책임 일'군은 하부 일'군이 자기의 작풍상 결함을 비판하였다 하여 그를 혹독하게 추궁하고 타 직장으로 조동까지 시켰다.

당내에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억압하는 이러한 관료주의적 경향들이 남아 있는 한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은 활발히 전개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며 당적 원칙에 위반되는 이러저러한 그릇된 경향들이 제때에 극복 시정될 수 없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자,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억제하는 경향들에 대하여서는 그를 범죄적 행동으로 규탄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성이 강한 핵심 당원들을 당 지도 기관 주위에 집결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에 있어서 당 단체들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항상 앞장에 서며 공산주의를 위하여서는 목숨을 내걸고 용감히 싸워 나갈 수 있는 핵심 당원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하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당적 원칙을 고수할 수 있으며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대로 대중을 확신성 있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

지난 기간 일부 당 단체의 지도 기관에 잠입하였던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핵심 당원들을 육성하는 데 관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억압함으로써 그들의 열의를 저하시켰으며 정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물론 이것은 핵심 당원들의 열성이 제고되면 자기들의 반당 반혁명적 음모가 백일하에 폭로될가봐 두려워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당 단체들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여독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실제 사업을 통하여 당에 충실하고 당성이 강한 핵심 당원들을 정확히 료해 장악할 것이며 그들이 당적 원칙을 고수하고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활발히 전개하여 일체의 그릇된 현상들을 주저 없이 제때에 적발 폭로하도록 인내성 있게 교양 육성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100만 당원이 다같이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당 규약상 원칙과 당원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의 유일한 의지에 의하여 한결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 당은 그 어떤 어려운 혁명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최근 시기 당 중앙 위원회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사업을 행정화하거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지 않는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지속하여 가지고는 이러한 긴절한 과업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없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사업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당 사업——산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면서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모든 부문에서 당 정책이 관철되는 정형을 계통적으로 장악하고 항상 주동적 립장에서 계획적으로 그를 발전시키며 실제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되여 당이 제기한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전망 과업들을 더욱 성과 있게 추진시키도록 힘 있게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

농산물 수매 사업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남 춘 화

사회주의적 농업은 주민에게 량곡을 공급하는 식량 기지이며 경공업과 식료품 가공 공업을 위한 원료 기지이다. 우리 당은 이 식량 및 원료 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알곡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면서 공예 작물 생산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 세우며 동시에 목축업, 양잠, 양봉, 과수업 등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이 식량 기지와 원료 기지를 가일층 공고히 하였다.

금년에 우리 농촌은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거두었는바 이것은 우리 당 농업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추수 사업을 적기에 완수함과 동시에 농산물 수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식료품과 원료에 대한 도시와 공업의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농산물 수매 사업에 심중한 당적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것은 다만 지금 농촌이 수확기에 처하여 있다는 사정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농산물 수매 부문에서 당의 수매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수매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 방법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방들에서 당의 정확한 수매 정책이 심히 외곡 집행되고 있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농산물 수매 사업이 계속 락후한 형편에 처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지난 시기 수매 부문에 잠입하고 있었던 오 기섭, 박 효삼 등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수매 일'군들 속에 당의 수매 정책이 정확히 침투되지 못한 데 있다. 그리하여 일부 수매 일'군들은 수매 사업을 단순한 행정 실무적 사업으로 처리하며, 수매 사업이 우리 혁명의 기본 동력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수매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수매 일'군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일'군들 속에 우리 당 수매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농산물 수매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보장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경제적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의 강화, 여기에 바로 우리 당 수매 정책의 본질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농 동맹은 무엇보다도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동맹인 것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은 다같이 착취 제도의 철폐와 사회주의 승리에 혈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두 계급의 공고한 동맹의 기초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이 공통한 리해 관계의 결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두 계급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찌기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대규모(«사회화된») 공업의 생산물과 농민의 생산물과의 교환, 이것이 사회주의의 경제적 본질이며 그 토대이다» (전집, 제 32권, 조선문 판, 417페지).

도시 공업은 농산물 수매를 통하여 량곡, 육류, 우유, 계란, 채소 등 식료품과 농산 원료를 보장 받는다. 따라서 농산물 수매의 규모, 조건 및 방법 등의 개선은 도시 주민의 생활과 공업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농산물 수매 사업의 개선에 따라서 식료품과 원료에 대한 수요 충족, 공업 제품의 원가 및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 공업에서의 축적의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농산물 수매는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산물 수매의 규모는 국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농산물과 협동 조합에 남는 농산물의 량적 상호 관계에 영향을 주며 수매 가격을 비롯한 수매의 제 조건은 농민들의 수입과 협동 조합의 축적의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협동 조합의 축적 규모, 확대 재생산의 템포는 농산물 수매의 규모, 조건 및 방법 등의 개선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농산물 수매 사업의 개선은 개별적 지역, 개별적 농업 부문, 개별적 협동 조합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매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리해 관계,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수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모든 점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농산물 수매 정책의 관철에 있어서 상술한 로동 계급과 농민의 경제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가장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우리 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농산물의 수매 사업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수매 방법, 수매 체계, 수매 가격 제정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수매 사업 과정에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훼손하는 일체 현상과 견결히 투쟁하여 왔으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방향에서 수매 사업을 개선하여 왔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수매 정책은 국가와 인민의 리해를 다같이 고려하며 그를 정확히 결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경제 정책을 농민들에게 철저히 침투시킨다면 농민들이 수매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수매 일'군들은 농민들 속에 당의 수매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는 정치 사업을 선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대신에 앉아서 수매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가져 오지 않으면 마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수매에 있어서 자원적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한 수'자를 내려 먹이는 등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당의 수매 정책을 외곡 집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수매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다른 국가 기관 일'군들과 더불어 인민의 충복이다. 그러나 일부 수매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 일할 대신에 농민의 리해를 침해하는 일까지 하였다. 이것은 지난 해 량곡 수매 사업에서 발로되였다.

지난 해에 일부 지방에서 수매 일'군들은 환상적인 수확고에 기초하여 수매 계획을 작성하여 놓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국가 량곡 수매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목전 수매 부문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량곡 수매의 성과적 보장이다. 량곡 수매 사업은 중요한 인민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바 그것은 우선 량곡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량곡은 보통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소

비하며 그것이 없이는 인민이 살 수 없는 상품이다. 김 일성 동지는 경제 건설에서 량곡 문제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량곡이 풍부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또한 량곡 수매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오늘 국가의 관리하에 들어 오는 량곡 중에서 수매 량곡의 몫이 현저히 증대된 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 량곡은 기본적으로 현물세와 수매의 통로를 통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집중된다. 알곡 생산은 계속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현물세률이 대폭적으로 저하된 조건하에서 국가의 관리하에 들어 가는 량곡 중에서 수매 량곡의 몫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이것은 량곡 수매의 성과 여부가 국가의 량곡 사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량곡 수매의 의의는 또한 농산물 수매의 전체 체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도 관련되여 있다.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의 결과로 공예 작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의 수매량이 급격히 증대되여 농산물 수매 총액에서 공예 작물, 축산물 기타의 몫이 증대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산물 수매 총액에서 량곡 수매의 몫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량곡 수매 사업의 성과 여부는 곧 국가의 량곡 사정과 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 당은 상술한 바와 같은 량곡 수매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항상 이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현물세제가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농민들의 여유 량곡을 자유 수매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량곡 수매는 그 형태로 보아 자유 수매에 속한다.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된 조건에서 당은 량곡 수매를 일층 계획적으로 진행할 대책을 취하였다. 량곡 수매가 일층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나 그 수매 형태에는 변동이 없었다.

량곡 수매를 일층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위한 제반 조건들 즉 알곡 생산의 형편, 협동 조합과 농민들의 구체적 실정, 수송 수단 및 창고 등의 상태와 공업 상품의 재고 등등에 대한 주도 세밀한 타산이 반드시 선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의 량곡 수매에서 일부 수매 일'군들은 수매 사업의 전개를 위한 구체적 조건에 대한 타산 없이 안일한 방법으로 무책임하게 사업함으로써 당의 량곡 수매 정책을 정확하게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당의 량곡 수매 정책을 더욱 정확하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1959년도 량곡 수매에서 일부 과거의 수매 방법을 고칠 것을 제시하였다.

금년에는 현물 분배에 의하여 농민들이 받은 량곡 중에서 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남은 량곡을 수매 기관에 개별적으로 판매하게 되였다. 따라서 량곡 수매 대금은 개별적 농민들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여유 량곡을 개별적으로 수매한다고 하여 농민들 자신이 여유 량곡을 분배 받는 현지에서 직접 국가에 팔려고 할 때 그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 생산이 급격히 장성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도 량곡 수매 가격은 당분간 현행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육류 및 소채 가격은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당은 농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다. 문제는 오직 수매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관철하는 데 달려 있다. 수매 일'군들은 지난 해 량곡 수매에서 범한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당의 정당한 수매 가격 정책을 정확하게 적용 집행하여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고도로 자극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수매 부문에서 발로된 관료주의는 량곡 수매를 비롯한 국가 수매에서 뿐만 아니라 채소, 축산물 등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을 위한 지방 수매에서도 표현되였다.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이 계속 개진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년도 량곡 수매 방법이 일부 달라진 것과 관련하여 수매 일'군들 속에서 발로될 수 있는 다른 편향은 수매 사업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향은 이미 조기 작물 수매시에 일부 지방에서 발로되였다. 량곡 수매가 자유 수매의 원칙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자연 발생성에 추종하며 농민들의 개인 리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는 한편 그들의 부정적 측면 즉 개인 리기주의적 경향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추종하여서는 안 된다. 농산물 수매 사업은 반드시 농민들의 협소한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사업과 긴밀히 결합된 조건하에서 전개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결합시킬 수 없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리해 관계의 정확한 결합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백방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 수매 사업은 응당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를 다같이 공고히 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를 강화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소비재의 분배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옳은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에서 조직되여야 한다. 수매 사업이 이와 같은 방향에서 조직됨이 없이는 농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확고히 인입할 수 없다.

농민들의 협소한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은 일조 일석에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장기간의 완강한 정치 사업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들에게 당의 정확한 수매 정책의 관철이 그들을 더욱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에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농산물의 류통을 계획화하며 수매 사업을 지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농산물 류통을 좁은 틀에 몰아 넣고 그것을 얽어 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 수매 기관의 임무는 농민 시장도 포함한 농산물 류통의 모든 통로를 다 리용하여 도시와 공업에 식료품과 원료를 가장 원활히 공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일부 지역에서 수매 지도원들은 유일 수매라는 구실로 일체 농산물에 대한 류통을 틀어 쥐고 자기도 사지 않고 남도 사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지방 수매에서 기동성이 보장되지 못하였고 농산물 류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에 따라 각이한 통로를 통하여 도시, 공업에 들어 간다. 농산물의 일부는 전국가적인 수요 충족과 대외 무역을 위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집중되며 농산물의 다른 일부는 주민의 소비적 수요와 지방 공업의 생산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지방적 류통에 들어 간다. 농업 생산 및 주민의 개인적 수요의 특성과 관련하여 일부 농산물은 농민 시장을 통하여 도시, 로동자 지구에 공급되는바 이 통로는 오늘 불만족하게 리용되고 있다.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 수매 기관들은 농산물 류통의 모든 통로를 다 동원하여 지방 수매를 더욱 잘 조직함은 물론 농민 시장과 같은 비조직 시장도 더 광범히 리용할 필요가 있다.

금후 지방 수매에서 심중히 연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의 원료 원천과 지방 공업의 수요를 가장 정확히 결합시킬 수 있는 수매 형태, 수매 방법을 발전 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 공업 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짧은 기간 내에 수 많은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협동 단체 지방 공업이 창설되여 그의 공고한 물질적 토대가 급속히 구축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2,038개의 중 소 규모 공장들을 가지게 되였고 매개 시, 군에서는 평균 11개의 공장들이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얼마 전에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지방 공업의 자립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재, 건재, 연료를 비롯한 일련의 자재들과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해결할

방책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각종 농기계와 건설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의 물질적 토대를 가진 지방 공업의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공업 관리 체계의 개편과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은 지방 수매 기관의 역할을 가일층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지방 수매 기관 앞에는 지방 공업이 지방 원료 원천에 확고히 립각하여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끔 지방적인 경제적 련계를 일층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공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지방 공업의 농산 원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장성되여 농촌에 공급되는 공업 상품 중에서 지방 상품 폰드의 비중은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중앙 집중적 련계와 함께 지방적 련계를 일층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방 수매는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공업의 수요도 매우 불만족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아직 지방 수매 기관은 지방의 원료 원천과 지방 공업의 수요를 련결시킬 수 있는 확고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적지 않은 지방 공업은 풍부한 원료 원천을 옆에다가 두고도 원료 부족으로 생산을 더욱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원거리 수송 등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속 저하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중요 문제의 하나는 지방 공업을 위한 튼튼한 원료 기지를 창설하며 공고히 하는 한편 지방 원료 원천과 지방 공업의 수요를 련결시키며 지방 원료 원천의 광범한 동원을 극력 자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매 체계, 수매 형태를 도입 적용하는 것이다.

지방 수매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 수매 기관들의 수매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매 계획은 생산된 농산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계획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 공업의 주문이다. 현재 수매 계획화 사업의 중요한 결함은 그것이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불만족하게 주고 있는 데 있다. 이것은 주로 수매 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불합리하게 작성된 데 기인된다. 수매 계획이 도시 공업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농업 생산을 극력 추동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농산 계획과의 호상 긴밀한 련관 밑에서 그 계획이 작성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계획화 사업에서 품종별, 계절별, 지역별 지표들에 일층 심중한 주의를 돌릴 것이 긴절히 요구된다.

금후 수매 부문 사업에서 다만 총량적으로 완수하면 만세를 부르는 부정적 현상과 견결히 투쟁하며 특히 수매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취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매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기 위하여 농민들 속에서 광범한 사상 동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은 명년을 완충기로 규정하였다. 명년에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인민 생활의 향상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게 된다. 당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 건설과 함께 부식물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다종 다양한 소비품의 생산을 급속히 높일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수매 부문 앞에 새로운 전투적 임무를 제기하고 있다.

수매 부문 일'군들은 지난 시기 수매 부문 사업의 발전을 장애하던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철저히 근절하고 수매 부문에서 당적 사상 체계와 혁명적 군중 관점을 튼튼히 확립하며 농민들 속에 우리 당 수매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침투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이 현 시기 수매 부문 앞에 제시한 중심 임무이다.

평화적 공존 리념의 승리

박 무 일

최근의 국제 정세 발전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평화 애호 대외 정책의 거대한 승리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전면적인 파산으로써 특징 지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있은 쏘련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의 미국 방문 결과에 이룩된 성과들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세계 평화의 공고화에 거대한 기여로 되였다.

미국 방문 기간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쏘련 정부의 완전하고 전반적인 군비 철폐안, 두 체계 간의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 동서 간의 광범한 통상 등 엔. 에쓰. 흐루쑈브의 일련의 구체적인 제의들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 격려하였으며 그들에게 전반적 평화에로의 길을 명시하여 주었다.

력사적인 이 방문은 쏘련의 레닌적 평화 애호 대외 정책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동시에 이것은 제 2차 대전 후 일관하여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힘》으로써 대하여야 하며 《힘》에 의하여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온 미국을 괴수로 한 서부 렬강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계 《최강》을 호언하던 미국 지배층이 《힘》에 기초한 자기의 침략적 대외 정책의 파탄을 자인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현상이거나 어떠한 국가 활동가들의 주관적 견해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의 요구이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선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대비가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된 사실, 둘째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위력이 부단히 그리고 급속히 장성되고 있는 사실, 세째로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더불어 지구의 광대한 지역에서 《평화 지대》를 형성한 신생 아세아,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이 새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여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국가 자체 내부에서 평화 세력의 급속한 장성과 계급적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설명된다.

금번의 엔. 에쓰. 흐루쑈브의 미국 방문과 미국에서의 평화에 대한 그의 열렬한 호소는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두 체계 간의 평화적 공존 리념에 대한 인민들의 신심을 일층 굳게 하였다. 이는 또한 현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의 단계가 도래하였음을 립증한다.

*　　　*

평화적 공존의 리념은 오늘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리념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파악하면서 새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열망하는 전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억제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으로 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호상 대립되는 두 제도가 한 지구상에 병존하는 이상 오직 위대한 레닌에 의하여 제시된 평화적 공존 정책만이 무서운 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항구한 평화를 보장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유일하게 정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립증하여 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2년전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한 결과에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쏘련이 탄생하여 자본주의 렬강의 포위 속에 있을 때에도 자본주의 제도는 그 무엇으로도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를 없애 버릴 수 없었고 그와 불가피적으로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더우기 제 2차 대전 후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변된 오늘에 와서 어떤 개별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계 체계와 자본주의 세계 체계 간의 평화적 공존이 문제로 된다.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는 제도상, 도덕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

력량상 면에서도 자본주의 제도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

제 2차 대전 전까지만 하여도 쏘련은 세계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 령토의 17%, 인구의 9%를 차지한 나라였으며 세계 공업 생산액의 겨우 10%를 점한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변된 오늘에 와서 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지구 령토의 약 4분의 1,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게 되였으며 세계 공업 생산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쏘련은 과학 및 기술 령역에서 미증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쏘련은 자기의 과학 기술적 성과들을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있는바 원자력 발전소의 조업 개시와 첫 원자력 쇄빙선의 진수, 세계 최대의 신크로파죠트론의 조업 개시는 그의 뚜렷한 표시다. 쏘련은 원자 및 수소 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포함한 온갖 최신식 무기들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를 진감시킨 쏘련의 우주 로케트들은 서구라파의 한 과학자까지도 말한 바와 같이 《10키로메터 상공에 있는 파리의 눈을 명중》시키는 정확성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력량 변화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감히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우선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영원한 매장으로 되고 말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심지어 가장 파렴치한 전쟁 방화자들까지도 이를 점차 알아 차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평화적 공존 정책은 비단 그것이 세계 인민들의 광범한 정신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국제적, 법적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더욱 확증되고 있다.이 정책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의 기초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평화적 공존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1955년에 개최되였던 반둥 회의에서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평화적 공존 원칙은 회의 참가국들 간의 그리고 이 나라들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관계를 평화와 호상 협조의 정신에서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 의하여 선포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은 비단 아세아의 이 두 강대국의 관계에 뿐만 아니라 구라파,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호상 관계에 중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 정세를 호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리념은 유엔 총회 제 12차 및 제 13차 회의 결정들에서 그 성원 국가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평화적 공존의 리념이 모든 인민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되였으며 그들의 심장에 더욱더 침투되여 무궁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는 달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세계의 도처에서 전면적인 파산을 당하고 있다.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받은 첫 치명적 타격은 조선 전쟁이였다. 조 중 인민군 부대들은 미제와 그 추종 국가들의 무력 침공을 격파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완전히 분쇄하여 버렸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서부 렬강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애급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후 씨리아와 이라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행동에서 거듭 타격을 받았다. 또한 《힘》으로써 《덜레스—아이젠하워주의》를 중근동에 강요하려던 미국의 시도도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시킴으로써 파산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만회하여 보려던 미국 지배층의 책동도 참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지난 날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무력의 행사, 지역적 분쟁의 도발 또는 지어 세계 대전의 도발을 좋은 수단으로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그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매 걸음마다 참패로 돌아 갔는바 이는 그러한 정책이 오늘날 더는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 시기 사태 발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지배층 내부에서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국가 활동가들로 하여금 점차 평화적 공존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의 평론가 리프맨은 《…회담에 대한 지향은 언제나 우리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란 없다. 왜냐 하면 주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혹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와 적들이 있는 세계에서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최근 시기에 미국의 대금융 자본가 이든, 이전 쏘련 주재 미국 대사 케난, 엘레노. 루즈벨트, 은행가 및 일부 상원 의원들과 기타 활동가들이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제 문제들을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타산하여 서부 렬강들이 보다 《신축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쏘련 정부와의 회담의 유익성을 인정하며 회담에 의한 국제 분쟁 문제의 해결을 지지하여 나서고 있다. 금년 2월 영국 수상 맥밀란의 쏘련 방문은 그의 표현의 하나이다.

한편 영국과 미국 실업가들이 쏘련과 중국에 자주 려행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통상 관계도 더욱 확장되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 발전과 함께 쏘련의 적극적인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소집된 제네바 외상 회의는 《랭전》의 얼음을 깨뜨리고 국제 정세를 개선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되였다.

이 외상 회의에 뒤이은 쏘련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의 미국 방문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의 회담, 그와 관련하여 발표된 쏘련—미국 공동 콤뮤니케는 현 국제 정세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쏘련—미국 공동 콤뮤니케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량국 수뇌자들의 회담에서는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 문제, 독일 문제 등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항구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유익하게 많은 면에서 호상 리해가 달성되였으며 특히 미조정 국제 문제들을 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가 달성된 것으로써 설명된다.

오늘날에 와서 미 영 지배층이 이러저러하게 《힘》에 기초한 정책의 전반적 파탄을 인정하게 된 것은 객관적 원인들에 의하여 조건 지어졌던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생산의 감퇴와 강력한 파업 투쟁의 앙양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매개 자본주의 나라 내부에서는 맹렬한 군비 경쟁으로 인한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근로 대중의 어깨에 들씌움으로써 계급적 모순이 한층 첨예화되였으며 지배층에 대한 광범한 주민층의 반항이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내부 모순도 현저하게 첨예화되고 있다.례컨대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 참가국들과 《공동 시장》 참가국들 간의 경제적 모순, 정치적 모순과 군사적 모순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나토 내에서의 의견 상위,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각이한 부르죠아 집단들 간의 모순이 현저히 로출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해방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파탄을 쓰라리게 체험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산주의》 및 《반쏘》 책동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과 모순되게 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대자본가들에게는 신생 독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였다.

정세 발전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이리하여 미국 지배층은 《힘의 립장에 선》 대외 정책의 파탄을 부득불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미 영 지배층이 아직까지도 국제 긴장 상태가 가일층 완화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반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미제는 왜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데 그렇게도 기대를 걸고 있는가? 그것은 미제가 현재 진퇴량난의 자체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경제는 군수 공업 체계를 갖추었다.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 바그다드 조약(현재의 센토),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등 일련의 침략 뿔럭들을 조작하였으며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위에 수백 수천의 군사 기지망들을 창설해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 미제는 소위 《공산주의 위협》을 떠벌리면서 비단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추종 국가 내에서까지도 군비를 확장하며 경제를 군사화시켰다.

이러한 미제 침략 정책의 종국적 목적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인 즉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과정을 저지시키려는 데 있다. 동시에 미국 지배층은 군수 공업 독점체들에게 거액의 리윤을 계속 보장하며 자국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며 타국 령토에 대한 강점을 계속하며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을 여전히 탄압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침략 정책을 계속 실시하려면 《랭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호전 계층과 불란서와 서부 독일 지배층들은 쏘련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간의 호상 방문을 극도의 불안과 초조로 대하였던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이미 완화의 징조를 나타낸 국제 정세를

전쟁의 기운이 농후하던 지난 날의 《랭전》의 시기로 다시 이끌어 가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 지배층은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면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의연히 낡은 립장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금번 유엔 총회 제 14차 회의에서도 자기의 거수기를 발동시켜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 문제를 의정에 포함시킬 데 대한 결의안을 부결하였고 티베트 문제를 회의 의정에 상정시켰으며 인도지나 지역에서 평화를 회복시킬 데 대한 쏘련 정부의 새로운 평화 애호적 제의를 거역하고 라오스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아의 이 지역에 새로운 전쟁의 온상을 만들고 있으며 긴장 상태를 첨예화시키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미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줄기찬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이 지역 제 국의 내정에 란폭한 방법으로 간섭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이 시대의 추세로 된 오늘 이에 발맞추려 하지 않고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불란서와 서부 독일 지배층 내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력사적 경험은 제국주의 세력이 자기 침략 정책을 스스로, 아무런 타격도 받음이 없이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제 생활에서 긴장 상태의 완화의 첫 징조는 보이나 아직 침략 세력은 무장 해제되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 않았다.

*   *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평화의 리념은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 확고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승리는 인류의 항구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첫 성과에 불과한 것이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공고한 평화의 확립은 자동적으로 순탄하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랭전》에 의하여 축적된 모든 것이 일조일석에 제거될 수 없으며 더우기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전면적 파산으로부터 신중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의 도래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가망 없는 사업에 〈분별 없이〉 달려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흐루쑈브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통제 수'자에 관하여》).

때문에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평화 위업에서 이미 달성한 현저한 성과를 고착시키는 동시에 고도의 경각성과 견결성을 가지고 평화 옹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평화의 보장은 어떤 《법령》, 《협정》, 《약속》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렬강들의 정책은 표리부동, 동요, 후퇴 등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평화의 보장은 제국주의 지배층에 대한 대중의 압력, 부단한 투쟁을 전제로 한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 대중이다. 인민 대중이 평화의 기치를 튼튼히 틀어 쥔다면 평화는 유지 공고화될 수 있다.

오늘 인류 앞에는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허다한 국제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례컨대 핵무기 시험을 그만두어야 하며 타국 령토상에 있는 군사 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대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미제는 조선에서 그의 침략군을 하루 속히 철거시키고 정전 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 행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라오스에서 감행하고 있는 불장난을 즉시 그만두어야 하며 금번 유엔 총회를 통하여 또다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과 같은 흉악한 《랭전》 책동을 결정적으로 그만두어야 한다.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미국을 위시한 서부 렬강 지배층들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엄격히 주시할 것이다.

평화와 사회주의의 개선 행진의 시대——공산주의의 붉은 기치가 달에까지 휘날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진보적 인류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한 평화를 쟁취하고야 말 신심을 굳게 하고 있다.

《근 로 자》 제 10호 (루계 167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9년 10월 15일　　인 쇄• 1959년 10월 10일

ㄱ—30609　　값 50 전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국판, 예정 페지 723페지, 예정 값 2원 20전,
발행 부수 20,000부, 발행 예정 12월.

이 책은 쏘련 국립 정치 도서 출판사 1958년 판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을 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철학 교재로서 집필된 이 책은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독자들에게 필독의 저서로 된다.

이 책은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반대하고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문제들을 해명하고 있으며, 현대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내의 주요한 위험성으로 되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데 예봉을 돌리고 있다.

이 책은 철학의 대상과 간략한 철학사 부분(3개장), 변증법적 유물론 부분(7개장), 력사적 유물론 부분(9개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4×6판, 예정 페지 50페지, 예정 값 8전,
발행 부수 100,000부, 발행 예정 11월.

오늘 농업 협동 조합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준수는 약진하는 농업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확립된 농업 생산 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방도이며 수단으로 된다.

이 책은 광범한 농업 협동 조합원들에게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 동시에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 및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제 방도를 쉽게 해설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현 시기 사회주의 분배 원칙 적용의 정당성을 더욱 더 알게 될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59년 10월